朝鮮日報 夕刊
十六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朝光 女性 少年

白鶴 酒

第一線部隊 德에進入!
敵軍擊破코更追南下

【天津十六日發同盟】午前十時三十分 軍司令部發表 京漢線에 沿한地區를 南下中인 我部隊는 昨十五日午後三時 順德에 進入하엿다

【天津十六日發同盟】京漢線方面의 我第一線部隊는 十五日午後三時順德에 進入하야 敵을擊散하고 十六日 拂曉에는 다시 南方으로向하야 猛進을繼續하고잇다 河北省에잇서 最後의要衝順德이擊破되여 城內에잇는 敵의抵抗은 거이업다십히 四分五裂되엿고 敵의主力은 河南省北端彰德方面으로 退却集結하는模樣이다 그리하야 省境까지는 一百二十三里를 남겻슬뿐이다

【天津十六日發同盟】京漢線에沿하야 南下元氏의 大激戰에서 敵을 擊滅하고 다시潮水와 如히南進하는 我石黑、坂西兩部隊의 先頭는 十三日臨城을 突破하고 다시南方으로 猛進을繼續하야 十五日午後三時頃 石家莊鄭州間의 要衝順德의 敵을擊破하고 마침내 어에進入하엿다 그리고 先頭는繼續하야 南方으로 猛進하는中이다

原平來襲한敵機 四機를遂射落!

【原平鎭十四日發同盟】十四日午後五時頃 九架의編隊로된 敵飛行機가 山西省原平鎭上空에 飛來하여왓스나 我地上部隊의 猛烈한「攻擊에遭遇하야 其中二臺는擊墜되고 其他는 아모所得도 업시 그대로遁走하엿다

【原平鎭十五日發同盟】山西制空權確保에寧日이업는 我○○根據地飛行隊의 ○○機는 十五日午前八時四十分 忻縣西方 約五十킬로의 地點을北進하는 三機編隊의 敵機를發見하고 壯烈한空中戰을 演出하야 二機는擊墜하고 一機는遁走식혓다 我方에는 被害가업다

杭州와閘口를爆擊

【上海十四日發同盟】十四日午前十時小谷大尉가指揮하는 ○○機는 勇躍浙江省의 杭州와閘口로나라 杭州에서는 停車場及車輛品을 滿載한列車數輛을 爆擊하야 散散히粉碎하고 閘口에서는 倉庫及線路에 爆彈數個를投下하야 大損害를 與하고歸還하엿다

【上海十六日發同盟】第三艦隊報道班午前十時發表=小谷大尉가指揮하는 ○○海軍、航空隊는 昨十五日午後一時頃 杭州空襲을決行、杭州驛을爆擊하야 이에火災를이르키게하고 또 카모프라주를施한列車와閘口驛倉庫及 線路等을 徹底的으로爆擊하야 敵에게大損害를與하엿다

秩父宮同妃兩殿下 賢所에御參拜

【東京電話同盟】十五日御歸朝하옵신 秩父宮同妃兩殿下께서는 十六日午前十時 宮中賢所에 御參拜하시엿다

涂縣爆擊

【上海十五日發同盟】第三艦隊報道班發表(午後九時二十分)今十五日午後三時和田少佐南鄕大尉가指揮하는 海軍航空隊는涂縣及 句容의 敵飛行場을 空襲하야・格納庫와 飛行場의 爆擊을 決行하고涂縣에서는 敵火藥庫 軍需品倉庫等을 爆擊하야 大破케하엿다

中島部隊、綏遠 台閣牧을占領

【綏遠十五日發同盟】中島部隊는 十五日早曉 西北으로 逃走하는 敵을 急追하야 ○○方面으로 進擊하고 先鋒部隊는 이미 台閣牧을 占領하고 繼續西進하는中이다

北支爆擊地

【○○十五日發同盟】北支方面에서 荒鷲部隊는 地上部隊의奮起와並行하야 北支戰局에 決定的活躍을 繼續하고잇거니와 十月一日부터 十五日까지 津浦、京漢兩線方面의 敵要地爆擊은 左의 四十九個所에 達한다

▲京漢線
石家莊、元氏、臨城、高邑、栢鄕、馮村、內邱、唐山、順德、張縣、寧晉、獲鹿、沙河、邯鄲、南和、彰德

▲津浦線
泊頭鎭、東光鎭、連鎭、桑園、馮家口、德縣、平原、禹城、舖莊

▲中部地區
故城、鄭家口、武城、大名、臨淸、油房鎭、獻縣、藏家橋、沙河橋、沙窩、大城、白洋橋、小範鎭、衡水、武强、深縣、大楡林、東鹿、辛集、晋縣、南宮莊、北宮莊、新川、藁城

逆襲敵을 勇敢히擊退

【上海十五日發同盟】十四日夜陸戰隊의 佐野部隊前面의 敵의逆襲은 近來에업는 가장激烈을極한것이엿다 午後七時十分頃數名의 尖兵을 先頭로 約五六十名의一部隊가 廣東街方面으로 潛入하야 我一面陸戰隊로된路地에 沿하야 我佐野部隊의 第一線으로 肉迫하엿다 我方도 手榴彈及機關銃으로써 이에 反擊을加하야 廣東街一帶는 彈煙으로 咫尺을 分辨치못하고 特히廣東街仁德里에 數名의 敵이드러와 彼我戰線은 約十米에 近接하야 白兵戰을演하엿다 또敵一部는 三義里方面에 肉迫하얏는데 佐野部隊는 勇兵으로 猛烈히 應戰하야 午後八時四十分頃苦戰激鬪後 이를 擊退하엿다

羅店鎭奪還目標로 逆襲한敵을擊退
上海北部戰線의戰況

【上海十五日發同盟】上海北部戰線의 支那軍은 羅店의 守備를堅固히하기爲하야 執拗히 羅店鎭奪還의 꿈을 버리지안코十五日午前三時 約三百名으로써 逆襲하여옴으로 同所를 防守하고잇든 我部隊는 敵을 約二十米前方까지 誘導한後 機銃과 小銃의 齊射를퍼부엇든바 敵은唐慌하야 死體百五十을 遺棄하고 潰走하엿다 이戰鬪에서 我方도 三名의戰死者를 내엿다

證據를들어 支那逆宣傳을反駁

【華盛頓十五日發同盟】駐米帝國大使館當局은 十五日UP通信記者와의 會見에서 日本軍이 催嚔瓦斯及 덤덤彈을 使用하엿다는 支那側의 宣傳을 否定하고 如左히逆說하엿다 上海戰線에서 遺棄된 支那軍의 彈藥箱으로부터 덤덤彈을 發見하엿다 곳 東京으로 보내어 保管하엿는데 將來禁止武器使用問題가 起한때에證據로 提出할터이다

時事解說
不戰條約

◇ 지난 六日 國際聯盟總會는「日本의 行動은 國際聯盟規約에 抵觸한다。」라는 決議案을 議決햇다。同日 米國國務長官은「日本의 行動은 國際關係를 規律하는 諸原則과 矛盾되고 또 九國條約과 不戰條約의 規定에도 違反된다。米國政府의 이 結論은 國際聯盟總會의 決議와도 一致된다。」라고 聲明하야 이 聲明으로써 聯盟의 決議에 呼應하엿다。多少 曖昧한것도잇지 今日의 聯盟은 英佛三國이 그牛耳를 잡는 聯盟이다。故로 聯盟과 米國이 一致한 結論에 達햇다는것은 四國의 日支事變에 對한 態度가 어느 程度까지 一致되여 잇다는 表다。

◇ 여기서 大體 不戰條約이란 무엇이냐?하는것을 보면 이 條約은 元來 佛蘭西가 提唱하야 主로 米國과 相議한 結果로 一九二八年八月廿七日 巴里에서 締結된 條約이다。이條約은 그原名을「戰爭抛棄에 關한 條約」이라고 하는것으로서「國家의 政策의 手段으로서의 戰爭을 抛棄하기를 締約各國이 嚴肅히 宣言한」이라는것이 條約의 骨子다。「嚴肅히 宣言한」이라는 文句에 依하야 推測할바와가티 이條約은 單純히 締約各國의 道義的 相互宣言에 그치는것이오 저 聯盟規約과 가티 違反國에 對한 制裁規定은 全然 업다。故로 첫재 이點은 이 條約의 特徵이다。

◇ 다음 둘재로 注意할것은 이 條約에 對한 留保條件이다。이條約締結에 際하야 日英佛三國은「本條約은 自衛權을 制限又는 毁損하는 것이 아니라고 認定한다」라는 뜻의 留保條件을 부치고、三國의 留保條件에 對하야 主唱者米國은「米國의 不戰條約案은 自衛權을 制限하거나 毁損하는 事情下에 업다。(中略)各國은 各國 自衛戰을 할수잇는가는 各國이 獨自로 決定할 權能을 가진다。」라고 聲明햇다。그런데 支那事變에 對한 帝國政府의 聲明은 첫재 이것은 帝國의 自衛行動이라고 햇고、둘재 帝國은 支那에 對하야 何等 領土的野心이 업다고 햇다。

又復粵漢線을空爆

【香港十六日發同盟】我海軍航空隊는 昨朝 銀嶺을越하야 粵漢線上에 出現하야 廣東黃河驛으로부터 九十米間의 線路에 徹底的爆擊을 加하야 이를大破하엿다

支那金融界 恐慌狀態現出

【上海十五日發同盟】國民政府는 上海事變勃發과함께 資金의 國外逃避를 防止하기爲하야 金融安定辦法을 公布實施하는外 金融機關의 預金還拂에 嚴重制限을加하야왓기때문에 金融界는急激한恐怖狀態에 모라너어 事態는漸次 重大化하게되엿다 卽國民政府는 各人一週間의 預金還拂額을 預金額의 五分以內로하고最高百五十元을超過치못한다는 極端한 還拂制限을 斷行하엿기때문에 도리혀國民의 通貨에對한不安을 增大식혀 이結果로不必要한 制限範圍內의 最高限度預金引出이라는 逆現象을 呈하게되엿다 一方 支那一般銀行은貸出이 硬結되여 回收不能한 反面에 預金의不斷한 引出에遭遇하야 資産狀態는 顯著히 惡化되고 最近에는 制限內의 預金還拂까지 拒絶하는者도 생기게되엿다 其中에도 上海諸銀行과如히 全國에 數十支店及支行을가진 一流銀行까지 마치내 影響을 울리고 預金還拂을拒絶하게되야 바야흐로 上海의金融界는 恐慌狀態를現出하엿다 今後의傾向은 逐日增大될 터인바 其結果는 國民生活上에 重大問題를 惹起할것임으로 財政當局은 其收拾策에 狂奔하다

本社參觀

▲忠南瑞山郡聖淵實修所生徒十七名 李德生氏引率下本社見學
▲新村幼稚園園兒十三名 金愛理氏引率下本社參觀

人事・集會

▲柳生繁雄氏(總督府社會課長)北支出征部隊將兵慰問次出張中十八日午後二時三十三分京城驛着歸任豫定
▲堀木鎌三氏(鐵道省運輸局旅客課長)同上
▲坂口忠次氏(鐵道省旅客官)北支視察次로 十七日京城着『노조미』로入京 十八日京城發『노조미』로滿洲로向할豫定
▲金東進氏(鮮滿拓殖會社參事)道間滿洲出張中十六日午前十時半京城驛着歸任
▲日野博良氏(總督府社會課員)十九日午後三時三十五分京城驛發平壤七十七聯隊에入營
▲木村武之助氏(カオール本舖常務取締役)京人事次來社

八面錄

◇ 資金調整法 昨日부터 朝鮮에도 施行。
◇ 三萬圓以下는 金融機關의 自由로、十萬圓以下는、事後認可、十萬圓以上은 總督府에서 許可를 엇게되엿다고。
◇ 그러고보면 事實上 當局의 制限밧는 일은 업을듯。
◇ 더욱 調整法 適用機關이 銀行、信託、生保、東拓、金組聯等에 限햇스니 一般에는 別無影響。
◇ 그러나 精神만으라도 金融에 關係잇는것은 事實。
◇ 金融梗塞과 아울러 物價가 騰貴。
◇ 輸入制限이 甚하고 平時産業이 減少되엇스니 物價騰貴는 必然之勢。
◇ 消費節約 勤儉貯蓄이 必要한所以。

九國條約會議에서 日支紛爭調停方法審議
루大統領、記者團에言明

【하이드파크十五日發同盟】三十日부터 부랏셀에서 開催할 九個國條約國會議가 日支紛爭解決에 對하야 如何한 具體策을 示唆할수잇는가는 米國民一般이 注目하는바인데 루-즈벨트大統領은 十五日하이드파크自邸에서 新聞記者團과 會見하고 九國條約國會議에서 取扱할 第一問題는 日支紛爭調停方法을 審議함에잇다는旨를 示唆하엿다 新聞記者團은부터『十二日優遇談話의 主旨로보아 今回의 九個國條約國會議에서는 日支紛爭解決策으로 調停手段을 提案할 方針이라고觀測되는데所見如何하냐』라는質問에 答하야 루즈벨트大統領은 그것은 優遇談話에 限하지안코 자조言明한바잇슴으로 判斷하야주기바란다 事實上으로 肯定하는對答을行하엿다 調停이失敗될 境遇에는 어떠케할터인가 하는質問에 對하야 루즈벨트大統領은 그러한 假定的質問에 對하여는 무엇이라고 對答할말이업다 中立法修正의 可能性에對하여도 同樣으로 只今무엇이라고 言明할수업다 고答하엿다 루즈벨트大統領은九個國條約國會議에 米國代表로外交顧問노만데비스氏가 任命되리라는 報道에對하야 言明을 避하고 다시上海에서 米國陸戰隊員及 水兵各一名이 榴霰彈에依하야 負傷하엿다는 報道와羅馬敎皇廳이 日本支持에 進出하엿다는 報道에對하야 質問이 나왓스나 루즈벨트大統領은 모두 言明을避하엿다 (寫眞은 루氏)

九個國條約會議 米、參加를保障

【華盛頓十六日發同盟】米國政府는 九個國條約會議에 參加受諾은아직 正式으로 表明치안엇다 權威하건대 政府는 이미 부랏셀駐劄大使 히리깁슨氏를通하야 白耳義政府에對하야『米國政府는九個國條約會議에參加한다』는言의保障을與하엿다한다

對極東問題 英外相談

【란다도노=웰일스=十五日發同盟】英外相이든氏는 十五日웰일스의 란다도노에서 一場의 演說을 試하야 現下의 國際問題에關하야 英政府의 方針을 明白히 하엿다 그中에도 極東問題及 九個國條約國 會議에 言及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루즈벨트大統領은 過日世界平和維保를 爲하야 米國도 協力을 不惜한다는 言言을 宣言하엿는데 今日世界에서가장有力한 共和國大統領으로부터 이말을 들은것은 크게 뜻을强하게하는바다 近近開催될 九個國會議에서는 我等은 聯盟으로부터 委託된 任務가 이會議에서 容納될것은 疑心업는바이다 余는 同會議에 招請國全部가代表를 出席시키거를 衷心으로 希望하야마지안는다

結局無意味?

【倫敦十五日發同盟】九個國條約國會議는 卅日 부랏셀에서開催키로되엿는데 開催하거던 會議의 議題 其他에 對하여는 萬事英米兩國間에서 基礎協議를遂하야 大體로 方針이 決定되엿는데英政府從來의 旣定方針인 平和回復의 支障이될 念慮가잇는 過激한 政策을 取하지안키로 內定하엿다고 傳한다 따라서 經濟制裁이코뽀앗과 如한것은 勿論議題로되지안코 米國政府도 이에 同意하는것으로 解釋된다 『루즈벨트』大統領의 最近發言은 그間의 消息을 示唆하는것으로 觀測된다 이英米兩國의 方針에對하야 和蘭等도不平을 表하야 會議를開催하는意義가업고 英米의意向發表로 足하다는 意見을 開陳하엿다한다

九國條約國會議 來卅日開催決定

【부랏셀十五日發同盟】白耳義政府는 過日來九個國條約國會議를開催하는件에 對하야 各國政府의 意向을 打診하고잇든中 十五日에 이르러 마침내三十日 부랏셀에서 開催하기로 決定하고 外務省은 左의 공문을 發表하엿다 白耳義政府는 米國과 同意下에 된英國政府의 要請에 基하야 極東事態를 檢討하기爲하야 今月末 부랏셀에서 九個國條約國會議를開催하기로 決定하엿다

自動車射擊事件 英政府正式抗議

【倫敦十五日發同盟】英國政府는 지난十二日 上海南方閔江附近에서 駐支英國大使館自動車二台가 日本軍飛行機의 射擊을밧은 事件에對하야 日本政府에 正式抗議를 提出하도록 十五日東京駐劄 크레기大使에게 訓電을 發하엿다 抗議內容으로 解釋되는것은 如左하다

一、日本政府의陳謝
一、責任者의處罰
一、將來의保障

아라비아人과 英警官隊衝突 英警側에死者二名

【예루살렘十五日發同盟】팔레스타인의 아라비아人의 反英熱은 最近 팔레스타인回回敎監督 罷免事件으로 依然 表面化하야 아라비아人의 暴動을 豫期치 못할 形勢에 잇섯는데 十五日未明 마침내 베레헴市에서 英國警官隊가 武裝한 아라비아人의 一團과 衝突하야 警官隊에 死者二名을 내엇다 卽 베레헴街道 솔로몬池附近에 武器를가진 多數의 아라비아人이 出現하야 不穩한 形勢에잇다는 急報에 接한 英國警官隊는 急行하야 이를 解散하려햇스나 아라비아人은 솔로몬池堤防에 依據하야 小銃으로 應戰하야 暫時猛烈한 銃火를 交한結果 未明에 至하야 겨우 아라비아人을 退散시켯다 이交戰中 雙方에 多數의 負傷者를 내엿는데 英國警官隊는 二名의 死者를내엇다

孔祥熙 華僑代表와懇談

【香港十四日發同盟】十三日마닐라府로부터香港에 歸還한財政部長孔祥熙는 十四日廣東에서 飛行機로 날려오陳濟棠을爲始하야 香港華僑代表者와 懇談하엿는데 아마 二、三日中에 飛行機로南京에 歸還하리라고 觀測된다

航空母艦까지加擔 遮斷區域을橫行
某國軍艦의不遜한行爲

【○○基地十六日發同盟】我帝國이 支那海上交通을 遮斷한以來 我交通遮斷狀態及 軍事行動을監視하고 一種의 데몬스트레이순을 敢行하야 武器放棄에 暗躍하고잇는 ○○國軍艦及潛水艦은最近益益 挑發的態度를 示하야 航空母艦까지 加하야 我遮斷區域을 出沒하고잇는바이다

王外交部長 誣告放送

【漢口十五日發同盟】支那政府外交部長 王寵惠는 十五日米國에向하야 라디오放送演說을試하야 支那에잇서 日本軍의 行動을 左와如히 誣告하엿다
米國國民은 此際日本을 援助하는 暴擧는 一切取하지안키를希望한다 日本軍이 支那軍에對하야 非人道的行爲를行함은 明白하다 日本軍이 毒瓦斯를使用하는것은 南京赤十字病院醫長에처거博士及 衛生保健部代表로비博士가 確認하는바이다

資金調整法 勅令公布

【東京電話同盟】十五日官報로臨時資金調整法을 朝鮮에施行하는件及 同法을 臺灣에施行하는件의勅令이公布되엿다

OKEH 11月新譜 오케-레코-드
追憶의언덕 宋達協
배떠날때 李蘭影
鐵血兒 高福壽
무러주세요 金貞淑
끗업는嘆息 李蘭影
情熱의크로버 金海松
요핑계조핑계 (一二〇六一) 뽐내지마소 金貞九 李銀波
아가씨運命 南仁樹
곡열일곱살이여요 (一二〇六二) 張世貞

오케-大演奏
十九・二十兩日 府民館 夜七時半
오케一專屬歌手總出演 C・M・C 째쓰밴드
流行歌・째쓰・民謠・舞踊 뮤직칼스켓취

爆彈的으로出現한世界的三大名藥
錠 エム・デ 胃腸藥 胃腸病에는 定價 2日 ・50 7日 1・00 15日 2・00 30日 3・50
アンチ・テーベ 結核卓効 補肺・榮養劑 定價 半個月分 6・00 一個月分 10・00
アストリン 喘息咳嗽治療劑 定價 3日分 1・00 5日分 1・50 10日分 2・50
詳細한것은直接問議하시압 地方特約店募集
代金은或은振替口座로引換으로 注文方法
京城府武橋町七二 東光製藥所 振替京城 19515 電本(2)5779

盛儀를豫想하는 明日의各種行事

神宮과京城神社에서는新願祭와例祭

八萬名動員旗行列

명십칠일은 신상제(神嘗祭)가 절후 마저서 ○○부대가 세계전사에 기록할만한 석가장(石家莊)함락을 완정식힌 혁혁한무훈을 축하하기위하야 전승축하행사를 때마춤 전국적으로 거행하게된 국민정신총동원 수간행사와 합하야 이주간중으로 거행케되여 십칠일 경성을중심으로 행할푸로는 다음과갓다

一、조선신궁에는 오전열시부터 칙사 남총독향아래 엄숙하게 추기례제를 집행하고 오후한시반부터는 전국일제히 축령에 의하야 집행되는무운장구、국위선양기원제를 집행하고 재경관공서전직원기타삼만명이 참렬하야 성의(盛儀)를예상케하고

二、경성신사에서는 오후세시부터 전국각신사와 호응하야무운장구、국위선양기원제를 집행하고 오후일곱시부터는 례제(例祭)전야제(前夜祭)를집행하고 경내에는여러가지 봉납여흥이잇슬터이다

一、황군의석가장점령을 축복하는 당일의 전첩축하기행렬은 시내각학교학생、생도、아동등기타각종단체 팔만여명이총동원하야 행렬은 기보와가티두반으로난호여 서반(西班)은 오전아홉시 룡산역전에서 집합하고 동반(東班)은 정오총독부구내서 집합하야 각각장사의렬을지어 황군전승의 노래를부르고 행진할터이라고한다

一、그리고 경성운동장에서는신궁대회 봉찬체육대회 최초일을 마저서 성황을예기한다

教育會慰問團出發

조선교육회 주최의 황군위문단 단장 안강(安岡)총독부 시학관이하일행십삼명은 십륙일 오전열시에 총독부에 집합하야 남총독의격려의말을 드덧다 일행은 십륙일오후열한시발렬차로 현지에떠나 시월삼십일에는 돌아올예정이다

未敎育補充兵訓練

제국재향군인회 룡산철도련합분회에서는 미교육보충병(未敎育補充兵)의 실지교육을 시키기로되야 철도국서무과예비보병소위(豫備步兵少尉)관정기(管正己)씨가 교관이되여 이백사십명의 국원에대하야 십오일부터 아프로 두달동안 매수일 두시간식 각개교련과 부대교련(部隊敎練)학과등에 대하야 훈련을하기로되엿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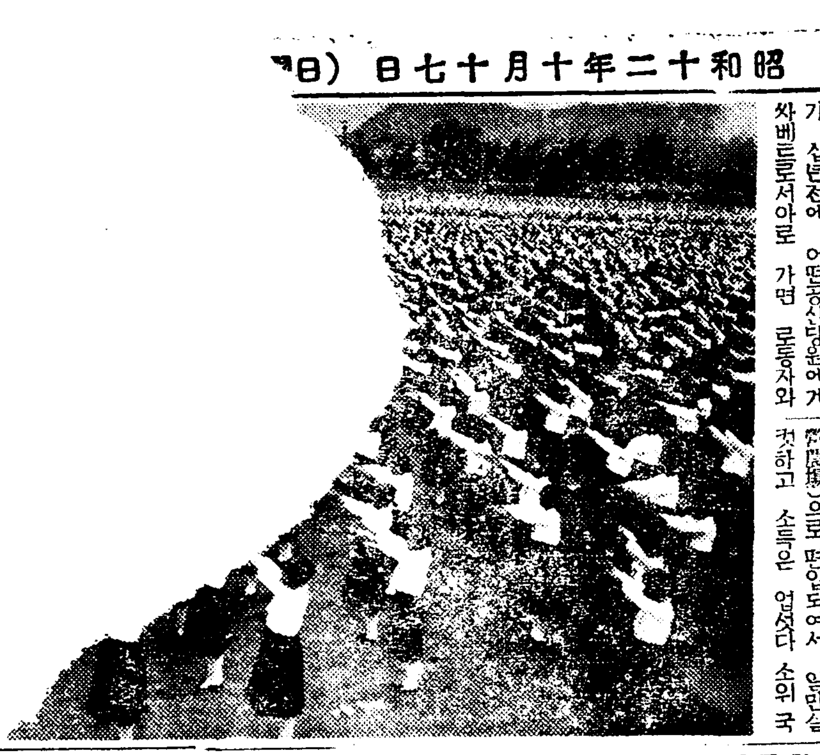
時局關係獻金募集 當局의諒解必要

强制에갓가운弊端도不無로 文書課에서統制

각지국방헌금열은 자못맹렬한바잇서서 불과수삼동안에 삼백오십만원의 거액에달하엿다 그러데 이국방헌금、황군위문기타 시국에관한 금품거출에대한것은 그대로방임하면 강제모집기타불상사를 연출할염려가업지아니하므로 총독부에서는 이것을통제하기위하야 십오일 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監)으로부터 각도지사에게 통첩을발하엿다 그내용인즉 엇더한단체든지 개인을론하고 국방헌금등기타시국관계의 금품거출의 필요가잇슬때에는 반드시 총독부문서과에 신청하야 량해를바더야만 실행할수잇스며 또 각도에서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야 량해를 밧도록 하는것이니 금후로는 만일판계당국의 량해가업스면 절대로모집하지못하기로되엿다

沿海州地方同胞에 蘇聯官憲이壓迫

脫出同胞靑年의體驗告白談



수일전에 소만(蘇滿)국경을넘어서 만주국 훈춘(琿春)으로드러온 두명의 조선청년이잇섯는데 그들은김종식(金宗植)리득춘(李得春)두명으로 모단국에 대하야 싸베트로서아에서 조선사람의 생활이 참담하다는 정황을 다음과 가튼의미로 이야기하얏다한다

자기는 함북성진군 학상면(城津郡鶴上面)출생으로 가세가빈곤하기때문에 작살길을 찾고잇다가 십년전에 어떤공사당원에게 싸베트로서아로 가면 로동자와 농민은 편안히살수잇다는 말을 듯고단신으로 고향을떠나 훈춘에서 삼십사명이일단이되여『니코리스크』서쪽이십리되는『다란또』이라는곳에가서 개간에종사하야 농사를 짓는동에 종사하엿는데 아침에 일죽 나가서 저녁늣게까지 일을하여도 일작은 겨우 일루오십가(一留五十哥)밧게 밧지못하엿다 그뒤 논농사를 소작으로 짓게되엿다가 국영농장(國營農場)으로 편입되여서 일만실컷하고 소득은 업섯다 소위국영농장이라는것은 종자 구정신밧은 국가에서 주지마는 수확물은 국가에 바칠 분량을 미리 정하기때문에 설령 흉년이되여서 손에 드러오는것이 별로 업드라도 바치지안흐면 안되기로 되여잇다 그것을 위반하는때에는 처벌을 당하게되야 몹시 곤난을 당하게된다 그러고 내가잇든 공동농장은 인원도 적엇지마는 당원 리성봉(李成鳳)(갈득은 계획대로의 수확량을 엇지 못하엿다는 탓으로 반동분자라하야 극지(極地)로 류형(流刑)에 처하여버렷고 리지언(李志彦)잇상모(張米)는아모죄도업시『께·페·우』에게 붓잡혀간뒤 생사의소식도 알수업다 최근에『싸베트』에 드러간 조선사람사이에 반소(反蘇)기분이 심해진 결과 탄압이 심하야 작구검거되고 혹은 총살도 되는모양이다 그래서 탈출을도모하는사람이 생기게되자 강제로기차에 실어서 다른곳으로이수시키고잇는 형편이여서 공포상태에잇다 이제나는 근근히탈출하야 만주국에드러와보니 참으로 여게야말로 락토이고 조선사람의 생활도 십년동안에만히 향상되엿슴을 보겟다 운운

全州、群山、大田도 市街地計畫實施

明年一月부터着手

총독부내무국에서는 전주(全州) 군산(群山) 대전(大田) 등 삼부를 조선시가지계획령(朝鮮市街地計畫令)에 의하야 시가의 대확장을 단행하기로 십오일결정하야 십일정식으로 발표하기로되엿다 그내용의 대개인즉

▲전주는 인구십만에 달하며 면적일억구백[illegible]만평박미돌에 달하게 확장할터인데 인구는 소화십년말현재에 비하야 약이배반이요 면적은 현재에비하야 약이배에 달할터이다

▲대전은 인구십일만에 달하며 면적 삼천사백사십이만팔천평 박미돌에 달하게 확장할터인데 인구는 소화십년말현재에 비하야 약이배반이오 면적은 현재에 비하야역시이배반에 달할터이다

▲군산은 인구십삼만에 달하며 면적 이천칠백육십삼만삼천평 박미돌에 달하도록 확장할터인데 인구는 소화십년말현재에비하야 약삼배반이되고 면적은현재에 비하야약륙배에 달할터이다

京畿道獻納機 總計十一機

豫想以上의好成績

경기도에서는 지난 사월이래 도민으로부터 다섯대의 애국비행기를 륙군에 헌납하엿는데 사변이 확대됨에따라 감사(甘蔗)지사를 비롯하야 도내유지가 서로의론하야 륙해군에다시 각각두대식을 헌납할계획을 세우고 구월중순부터 경우한달동안에 약삼십만원의 자발적 신청을 접수하여서 예정액을돌파하기 팔만오천원이되엿다 이리하야 두대를 또다시 추가하야 여섯대를 십륙일 조선군사령부와 진해(鎭海)요항부에대하야 각각그헌납수속을마첫다 이리하야 경기도에서는 모두열한대를헌납하게되엿고 또근군수원호(水原號)를 달리헌납하게될터이다

金庫破壞現場逮捕

십륙일오전열시쯤 부내련건정(蓮建町)공동묘지에서 십칠세나 되여보이는 소년한명이 철궤한개를가지고 부시고잇는것을 통행인이 발견하고 곳소관아현주재소에 알리엿다 서원은 곳현장에가서 십오간추격한후에 체포하엿다는데그는 부내아현정(阿峴町) 산칠번지의 십삼호에사는 최갑철(崔甲鐵)(一七)이라는 소년

精神異常者自縊

부내 하왕십리정(下往十里町) 사십륙번지 대궁길평(大宮吉平)(三七)은 십륙일오전세시경 자기집에서 목을매여자살하엿다 지난이는날부터 정신에 이상이생긴것으로보아 갑작이한짓으로생각된다

鐵道局의大量增員 局員千名을新募

明春就職戰線의朗報

철도국에서는 각방면의 사업확장에 따라 명년도에도 중등 전문 대학 졸업정도로 약천명가량의 인원을 새로 채용해야될 형편인데 지난달삼십일까지 조선、일본내지각지로부터온 지원자의 지원서를 마감하야 방금 정리중이다 정리의 결과를 보아야알겟지마는 정원을초과하야 상당히 다수에 달할것으로 보인다

高齡者百餘名 南總督이招待

來月十二日龍山總督官邸로

신임월십이일을 중심으로 국민정신작흥주간(國民精神作興週間)의 경로애유일(敬老愛幼日)을 기회로 남(南)총독은 당일오전 열한시부터 룡산관저로 전조선의 팔십세이상되는 고령자를 초대하야 장수자위안회를 개최하기로 되엿다 이초대회는 경기도내로부터 약백명을 초대하고 그밧게 각도로부터 열명내외의 고령자가 출석할터이라고한다

時局反響을따라 神社參拜者倍增

이번 지나사변이 일어난이래 황군의무운장구、국위선양을 기원코저 조선신궁에 참배하는사람은 날날이 격증되고 잇는데 사변이래 삼개월동안의 참배자수를 조사하여보면 칠월에는이십삼만오천삼백이인(작년이달보다 십이만구천이백이십구인증가) 팔월에는 칠만이백인(작년이달에 비교하야 륙만칠천삼백이인증가) 구월에는 이십일만사천삼백인(작년이달보다 십사만오천륙백이인증가)에 달하야 거이배나늘엇다 그리고 사변을 게기로 전조선 각처에 신사(神社) 또는신사(神祠)의 건설계획이 급격히 진전되야 이미 사변이래 건립된 곳만도 전남순천(順天)신사를비롯하야 신사(神祠)는 경기도에하나、전라남도에 셋、경상남도에하나 황해도에하나、평안남도에둘、강원도에하나、함경북도에둘 모두열두곳이나된다

燈火管制闇夜를利用 稀代의色魔跳梁

鐵道沿路通行婦女를觸處凌行 犯人은鐵道傭人

등화관제하의 암야를 기화로 서부경성의 철로연선상에서 야수와가티나타나 야간통행의 부녀를 닥치는대로 폭행을한 희대의색마가 십오일밤 열한시에룡산서원에게 체포되엿다 부내금정(錦町)삼십사번지에잇는 원정(元町)모과자점의 여공으로잇는 림옥선(林玉仙)(一七)과 그의동무인 한성녀(韓姓女)(一七)가 십오일오후여덟시반쯤 공장에서 나와 남(南)권번압 선로를 지나는 경우통행인의 구조로자기집을 오게되엿고 이새마는 그자가 어떤사인지 철로원의 정복 정모를 착용한 삼십세전후의청년이 나타나서 림옥선을향하야 위반이다 룡산려관까지 가자고 하며 수첩을내여 추소리를하고 기재한후에다리고 가게되엿다 그러나 그는원정사정목 까슬린로만 다리고 제방의 회사를지나류 [illegible] 르로만 다리고가서 내말을드르면용서하여주겟다하며 폭행을하려고하자옥선이는 "사람살리라"고고함을지르자 때마침 그곳을지나는 구조로의[illegible] 의 가 이 [illegible] 도 [illegible] 한 범행을 일대적으로 행하려고 배회하고 잇는것을 일대격투후에 체포하엿는데 그는 원정일정목 동대문수(東大門)도 십삼번지 [illegible] 에사는 철도고원 출서자로 등화관제이 출한것이 [illegible] 그는 부녀도 잇섯다 그러나 취조의결과판명되엿스며 위선 피해자는 상당한수의 부녀도 잇섯 다하나 신분과체면관계로 신고하다가 체포된 것이라는데 철도국에서는 연금 삼십팔원이 나 그배후에는 그를 조종하는 철도원 일파의 자가 잇다 하며 취소를 엄중히 하나 궤절 중단이 잇는 모양이라 하야 새로이 활동을 개시하고잇다

白茂線에大雪

白岩은一尺二寸積雪

십륙일아침에 성진(城津)철도사무소로부터 철도국에 드러온 보고를보면 백무선(白茂線)일대는 십오일밤부터 눈이오기시작하야 방금 굉장히 쏘다지고잇는데 십륙일오전여덜시 현재의 적설량은 백암(白岩)에 한자두치가량 유평동(楡坪洞)에 두치가량된다고한다

北朝鮮의役牛를 滿洲서大量輸入

今年은千五百頭明年은四千頭

農業移民增殖함께

【봉천십륙일발동맹】만주농업이민의 증식에 따라역우(役牛)의 수용은 년년증가되여가는것인데 만주축산회사(畜産會社)는 이번새로 축우(畜牛)이백만두증식오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 역우(役牛)로서 북조선소를 대량수입하기로 결정하야 방금북조선농회에게원을 파견하야 조사를식히고잇다 우선 금년은 일천오백머리 명년도부터는사천머리를 수입할 방침이라고한다

鐵道局을增築

工費十五萬圓으로 그래도狹窄은未免

철도국에서는 청사(廳舍)의협착으로 금년오월부터 현재의청사여때에잇는 비러딩백륙십구평에 이층으로 증축공사를 진행중이든바 근일중에드디여 완성되야 각기의 사무실을 정하기로되엿다한다 현재의 청사는 (명치[illegible]년구월)즉 이제로부터 이십륙년전에공비십오만오천여원을 드려서 총평수 칠백팔십삼평에 건축을한것인데 사업의팽창으로 점점협착하게되야 대정십이년이래 수차로 증축하야 증원(增員)을수용하여왓스나 최근에건축(建築)개량(改良)과의 확장과전기(電氣)조사(調査)과의 신설로드디여 대증원을하게되야 수용할곳이업게되여서 드디여 공비십오만원을 드려서 신축하게된것이라는바 다 그러나 한사람이며 한평도 채되지못하는 상태이므로 명년도의 증원계획에 따라 역시 수용할 여유가업는터이여서 결국 청사부족의 격정은 그대로 남아잇는 세음이라한다

『之』者行택시事故

십륙일오전여섯시이십오분쯤원정(元町)삼정목사십삼번지압전차 선로를 동대문행전차 일백사십칠호를 박삼석(朴三石)이가 운전하고가는데 그뒤에서 부내원남정(苑南町)에 잇는 사구라택시——경(京)구천륙십륙호를김완성(金完成)(二四)이가 운전하고달려오다가 전차궤도에서 차도로 빗기려하엿스나 가속도로달려오든때이라 차도로곳나오지못하고 충돌되엿다 놀래인 자동차는 급카부로써차도로빼저나가는 바람에 인도에까지 올라서게되여 갈지자거름을치다가 인가의담판자에 충돌되엿스나 량편인명에는 관계가업섯다한다

天氣豫報

豫報 今夜와明日은西北風이불며개이고 추워지다 京畿全區모갓다

昨日最高	一三度五
同 最低	五度六
今朝最低	七度一
今日正午	八度七

第十八回全朝鮮蹴球選手權

中等、專門、一般三部爭霸戰 三十日부터連五日間

蹴球朝鮮의 年中盛事로서 가장오랜歷史를 자랑하고잇는 第十八回全朝鮮蹴球選手權大會는 朝鮮體育會主催下에 오는三十日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하야 三十一日、十一月一、二、三日의連五日間 中學、專門、一般三部에나노아 擧行할터인바 申請期는 十月二十五日午後五時까지인데 參加金은中學部三圓、專門及一般部는五圓을 添付하야 選手十一名 補缺四名、監督一名을記入한後 京城府鐘路一丁目四六朝鮮體育會事務所로 申請하기를바란다

六大學野球雨天延期

【東京電話同盟】十六日神宮球場에서 擧行豫定이든 東京大學野球리-그의慶應對明治、法政對立敎各一回戰은 降雨로因하야 十七日午前十一時半부터 同球場에서 行하기로 延期되엿다 二回戰의日程은 十七日에決定發表할터이다

中等리그決勝戰 培材優勝 京商軍零敗

中等리그決勝 培材對京城商業戰은 十六日午後一時三十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上野氏審判아래 京商킥어프로 開始한바 前半十二分에 培材에날리킥을利하야 [illegible] 先取한後 同廿九分에 [illegible] 의 드리이블로 一點을 加하야 八、[illegible] 으로 前半을 마치고 後半에 드러가 九分에 培材元李君의 드리이블로 得點하야 十三對零으로되엿다가 廿五分에 [illegible] 君의 드리이블로 三點을 더어 十六對零으로 培材가 勝하엿다

【京商】	[illegible]
FW	[illegible]
HB	[illegible]
TB	[illegible]
FB	[illegible]
【培材】	[illegible]

朝鮮神宮體育大會

第十三回 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第七日은 十六日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을 비롯하야 奬忠壇球場、朝鮮日報社에서 다음과가튼 各種競技가 擧行된바 當日夕刊마감까지의 戰績은다음과갓다

陸上競技

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 陸上競技選手權의 第六回全朝鮮陸上競技選手權大會第一日은 十六日午前九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한바 當日決勝戰績은 다음과갓다

【投距丸決勝】1柴田(黃海)一三米一五 2渡邊(咸北)一一米七一 3安永(培材)一一米六二 4小林(咸南)一〇米六七

【走幅跳決勝】1金源德(平南)六米九六 2鹿內(鐵道)六米八四 3金龍錫(延專)六米六〇 4裵俊(黃海)六米二〇

【一萬米決勝】1柳長春(遞信)三[illegible]

排球

◇[illegible]

第一高女2 (21 15 / 18 21 15) 1 大邱高女

◇準決勝戰

第二高女2 (21 21 / 9 15) 0 聞谷高女

元山高女2 (21 21 9 / 19 14 21) 1 第一高女

籠球

◇第三回戰

中東31 (15 16 / 14 10) 24 海高

◇女子準決勝

淑明13 (4 6 / 9 5) 11 女師

午前十一時三四分(審判=金化[illegible])

進明14 (8 4 / 6 3) 7 釜女

午前十一時[illegible]分(審判=林[illegible])

平高28 (14 [illegible] / [illegible] 8) 21 晋高

高商野球優勝

專門野球決勝 高商對醫專戰은 十六日午後零時十五分부터 京城球場에서 田代、安田(球)馬場(壘)三氏審判下에 高商先攻으로開始한바 六對四로 高商軍이 優勝하엿다

◇投捕—(高商)西田、黑崎—長野 (醫專)渡邊—宍戸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高商	1	3	2	0	0	0	0	0	0	6
醫專	0	0	0	0	4	0	0	0	0	4

卓球

第十三回 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 一般男子卓球選手權 爭奪戰은 十六日午前十時부터 本社大講堂에서 斯界의一流選手七十三名이 參集한가운데 擧行하엿는바 이날夕刊마감까지의 戰績은 다음과갓다

【第二回戰】

金甲淳(平南)3…1白 璉(黃海)
門 屋(咸南)3…2難 波(京城)
朴鍾植(京城)3…0金成煥(平南)
朴錦圓(黃海)…棄 朴紹園(京城)
金龍雲(京城)…棄 崔善俊(黃海)
黃致玉(平南)…棄 箭 本(慶北)
石完鎬(京城)3…0松 元(慶南)
洪性佑(京城)3…0梢信龍(黃海)
全成鎬(慶北)棄 馬屬奎(平南)
金鼓玉(京城)棄 張正寬(平南)
樺 島(京城)3…2白泰日(慶南)
三 戸(京城)3…2張龍風(慶南)
金相鎬(京城)3…0崔任昌(平南)
李星煥(京城)3…0李生仁(京畿)
邊龍煥(京城)3…1姜永煥(咸南)
尹尙周(平南)3…0金容甲(京城)
具滋鳳(京畿)3…0閔 田(忠南)
國 脇(京城)3…0蘇秉勳(忠北)
李東俊(京城)3…0相 村(慶南)
李順孝(京城)3…0高秀男(咸南)
朴春雨(慶北)3…0金義植(平南)

二回戰

鄭敞鎔(慶北)3…0洪運均(全北)
文錫塤(京畿)3…1元容恒(黃海)
水 島(京城)3…0小 林(全北)
崔根善(京畿)3…0下 野(京城)
朴在敏(京城)3…1韓相俊(忠南)
熊 井(咸南)3…0崔龍煥(平南)
早 瀨(京畿)3…1李允奐(咸南)
大 野(京城)3…0吳錫鎭(平南)
閔寬植(京畿)3…0崔亨[illegible](黃海)
金鍾勳(平南)3…0寺 田(京畿)
朴盛奎(咸南)3…0小 野(黃海)

【第三回戰】

樺 島(京城)3…2邊龍煥(京城)
李東俊(京城)3…0鄭敞鎔(慶北)
全成鎬(慶北)3…0金鼓玉(京城)
金相鎬(京城)3…0三 戸(京畿)
水 島(京城)3…2朴春雨(慶北)
國 脇(京城)3…0文錫塤(京畿)
具滋鳳(京畿)3…2朴盛奎(咸南)
金基鎬(平南)3…0閔寬植(京畿)
李順孝(京城)3…0尹尙周(平南)
門 屋(咸南)3…0李星煥(京城)
黃致玉(平南)3…2金龍雲(京城)
大 野(京城)3…0金甲淳(平南)
洪性裕(京畿)3…0石完鎬(京城)

庭球

男子各道對抗

第一回戰

【京城府】勝 【忠北】

○(崔永生 [illegible])4…0(陳[illegible] 李[illegible])×
○(洪承杰 渡邊)4…1([illegible])×
○(黃[illegible] 朴[illegible])4…0(張[illegible] [illegible])×

【黃海】勝 【咸南】

(第一라운드)
○(小岩 山佐)4…0(金[illegible] 李[illegible])×
×本山(洪[illegible])2…4(天兒 辰島)○
○(吳[illegible] 金[illegible])4…3(劉[illegible] 李[illegible])×
(第二라운드)
×(小岩 山佐)3…4(天兒 辰島)○
(第三라운드)
○(吳[illegible] 金[illegible])4…1(天兒 辰島)×

柳韓洋行이治麻劑를大衆에게宣傳販賣치안흔理由

柳韓洋行은 從來에 治痲劑를 醫院 又는 醫師에게는 多少宣傳도하고 紹介도하여왓다。

그것은 醫師諸位가 各自의 專門的見解로서 治痲劑를 內外科的治療에 適當히 使用하야 一定한 效果를 得할수잇슴을 信하엿기때문이다。

그러나 一般大衆에게는 新聞.雜誌等 廣告를 利用하야 宣傳販賣하여본일은 전혀 업섯다。

그理由는 巷間에 雜多한 治痲劑가 製出되여 呼日名藥이오 稱日特效劑라고하나 實際治療에잇서서는 統計上으로보아 何等 優秀한 治療率을 보지못하엿슴으로 敢히 柳韓洋行이 虛僞로써 一般에게 特效劑라고 宣傳할수는업섯기때문이엿다。

故로 柳韓洋行은『우리自身에게 信實하고 우리 民衆에게 誠實하며 또한 信用을우리生命으로삼는』社是에따러 아즉까지 大衆에게紹介할 治淋劑의出現을 보지못하고 우리 社會에 蔓延되는 此社會病의 治療困難을 바라보고 憂慮할따름이엿다。

多幸히 얼마前에 歐洲에서 一種藥品을 創製하엿는대 此藥은 英.米.佛.獨.日等數個國大學敎授等이 患者에게 實際應用한結果 十中八九(80—90%)의 놀낼만한 治療效果를 得하엿다고하는 確實한 臨床報告가 發表되여 자못 斯界에 一大센세이순을 惹起하엿다。

이에 柳韓洋行은 우리 社會의 痲疾受難諸位에게 奉仕하야 弊社가 提唱한 保健運動에 一助가 될가하고 數個月前 卽時 電報로 注文하야 方今 歐洲로부터 輸入途中에잇다。

本劑의 藥名은 지유싸이드(G.U.cide)라고 하는것으로 不遠入荷될것으로 밋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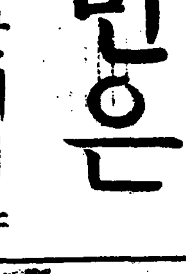
外國藥品直輸入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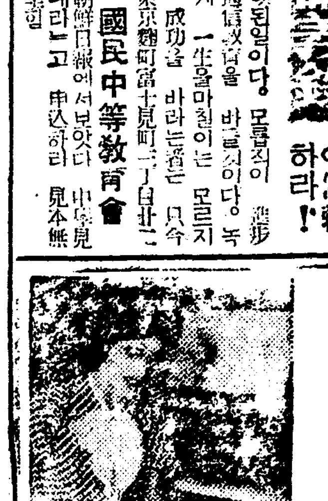
上海.大連.京城

일로부터는 아모래도 中學만은 맛치여야 한다!

有名한 [illegible]講義錄에依賴하라!

小學程度만으로 社會에 나서는 少年은 實로 不幸하다!! 中學卒業의學力만이、諸君의 成功에 不可缺의基礎이다。中學卒業의實力만잇스면世上에서 한사람으로서의認定을밧고 實社會에나 官廳校에나 堂堂進出할수잇다。그러나 幾千圓의 金錢과五年間의 日字는 刻忙한現代에는 너무나 허된일이다。모르지마는 成功을 바라는者는 只今곳 東京麴町富士見町二丁目廿二番地 國民中等敎育會에『朝鮮日報에서보앗다』中學見本보내라』고 申込하라 見本無代進呈함





山葉ピアノ

良品은所有者의자랑 月賦의便法잇슴

呈 進 카타로그 月賦

京城本町一丁目 日本樂器[illegible]社

全國에[illegible]잇습니다

森永ビスケット

모리나가 비스켓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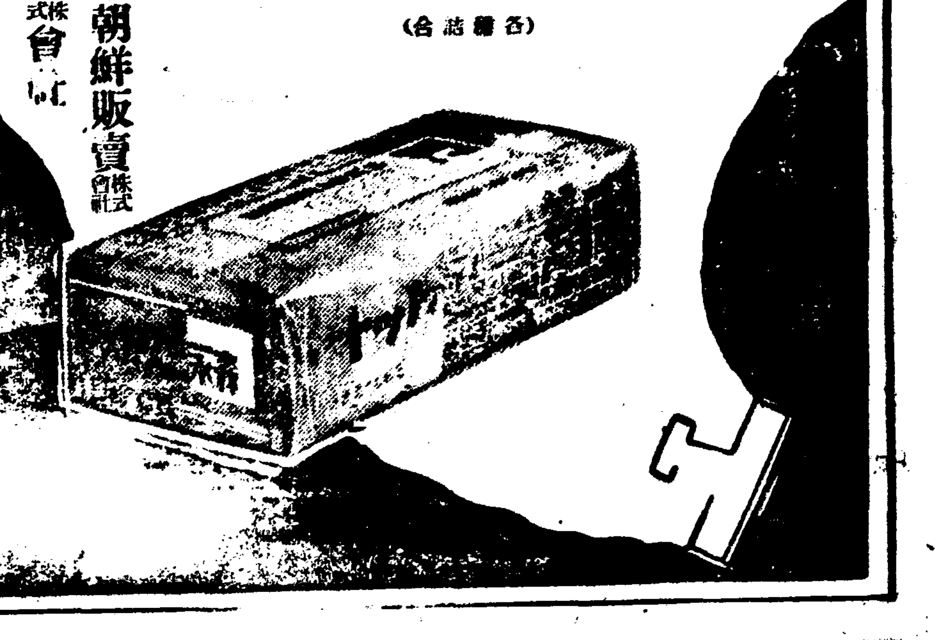
品質·東洋一

大體히 經濟的이고 滋養이 豐富하고 衛生的이라는 點에서 發育期에잇는 애기네들에게는 업서서는아니될 必須品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愛用하여주시기仰望하나이다

類似品이잇사오니반드시森永이라고指定하여주십시요

發賣元 京城 森永製品朝鮮販賣株式會社

製造元 東京 森永製菓株式會社



(合諸蓄名)

아푸거나·쓰리지안코·爽快하게잘듯는

대학목약

大學目藥

半島의 舞姬 **崔承喜孃**曰

名眸의秘訣은大學目藥의愛用에잇습니다、同胞諸孃이여 彼此에 아름다운强한눈을가집시다

眼科專門大醫

醫學博士 河本重次郎氏
醫學博士 小玉 龍藏氏
醫學博士 吉田 義治氏
醫學博士 山中 崔之氏
醫學博士 豊田 正達氏
推奬

流線型容器

—스마ー트하고便利한自動點眼容器—

體千兩 目九百兩

눈의治療에 힘쓰라

眼疾原因의거의全部가 不潔과 榮養不良에잇습니다、塵埃와 煤煙과 때에더러운얼골과 눈을씻지안커나더러운손으로 눈을문지르거가해서 眼疾이생깁니다、太陽의强한紫外線과 컴컴한電燈下에서 일을하거나 細微한文字를읽거나하는일로해서도 눈은 疲勞하야 弱해집니다、눈이붉어지거나 눈곱이끼거나 좀아푸거나할때에 곳治療를加하면病이되지안코 말것이라도 治療를 加하지안코버려두는故로病이되는것이며病이된뒤에는 治療가길게끄는것입니다

眞正한 治療法과

눈을强하고곱게하는法

眼疾의眞正한治療法은 于先大學法眼藥(目藥에添付)一錠을곱부半分의 熱湯에녹여서 시킨뒤에 까ー제에 적시어눈의안팟을 輕하게 몃번이고 씻습니다、다음에大學目藥二三滴을 點眼합니다、이것을 每日三回 꾸준히 繼續하면지금까지좀처럼낫지안튼眼疾도顯著히快差해갑니다。

또、지금은눈이나뿌지안트래도 每日豫防해두면眼疾이되지안코맙니다、그것은 每朝洗面後에大學目藥을一二滴點眼하면고만입니다、아츰엔 눈곱이끼고해서第一不潔할때오니 每朝點眼하시면 언제나 强하고 고운눈을保有할수잇습니다、特히婦人의美眼法으로는이것이第一입니다。

大學은 權威잇는

世界的高級眼科藥

大學은眼科醫學의泰斗五大博士의推奬하시는바 治療力이極히强한目藥으로殺菌、防腐、收斂의効果와專賣特許製劑우르비올레긴이라는 紫外線防止藥까지配劑되엿는故로 단한가지로實로左의세가지作用을가젓습니다。

一、眼疾을速히治癒하는힘
二、눈을아름다웁게하는힘
三、紫外線의害를防止하는힘

따라서眼疾이잇는분이쓰시면速히回復하고、健眼하신분이쓰시면强한눈·고운눈이되고、老人이쓰시면視力이回復되고바다와山에서쓰면紫外線의害를밧지안코맙니다。

아이들에겐 小兒用大學目藥

大學目藥은조금도아푸거나쓰리지안코써 爽快한氣分을주는故로아이들에게쓸지라도괜찬습니다마는 十歲以下의小兒에게는小兒의눈에맛게한小兒用大學目藥이잇습니다

硼酸보다나흔大學洗眼藥

大學洗眼藥은 最新殺菌藥녀어보르미친을主藥을삼은强力한消毒力과治療力과點眼藥의作用을돕는 効果가잇는洗眼藥입니다 大學獨特의創製品으로完全消毒싸니레ー프包裝을하야大學目藥一瓶마다添付하엿습니다 不足하시거든洗眼藥만의賣品도잇습니다

適應症 定價

[illegible] ○상한눈 ○삽눈 ○진안질

人造龍甲케ー스付

一瓶入	五十錢
二瓶入(눈케ー스二個入)	五十錢
綠光用特大瓶付(圓)	一圓

케ー스업시

試用瓶	十錢
小瓶	二十錢
大瓶	三十錢
德用	五十錢
(小兒用)	二十錢

大學洗眼藥

十錠	十錢
卅一錠	二十錢

全國各地藥房에서販賣함

大阪北濱 **參天堂株式會社**

少年朝鮮日報

보십시요

동화、동요、작문、습자、그리고 학교안에서생긴 자미스런이야기잇거든적어 보내주십시요

나무가지에 꾀처잇는 개고리와벌러지

대체누구의작난일까 알고보면때까치의짓

느진가을부터 겨울까지 버드나무 뽕나무가튼데 개고리메뚜기 조고만 물ㅅ고기등속이 꾀치어잇는수가잇습니다。그것은 때까치란놈의 작란이랍니다。어느때는 쥐、박쥐 도마、참새、조그만 산새도꾀자놋습니다。그것도 하나도둘이아니요 여러개를 한군데 삼월서 팔월까지 숙 느려서꾀자놋습니다。본래 때까치는산ㅅ속에서알을나코 지내다 가느진가을부터 들로 나려와서 겨울을지내고다시산으로 올라갑니다。또 그것들은 암컷 수컷 한쌍이 짝을

지어서 사는데 저의 사는 구역으로 딴놈이 들어올때는 고만 싸옴을 해서 쪼차버립니다。물론 조그만 동물을 나무ㅅ가지에 꾀자 노흔것도 한쌍의 자웅이 함께 해노흔것 이라고 생각됩니다。어째서 그런작난을 하고 잇는지 거기는 학자들간에 여러가지의 말이 만습니다。

(첫재) 때까치는조그만 동물을 잡아다가 나무ㅅ가지에 걸어 노코 조금씩 뜨더 먹는 버릇이 잇는터로 그때 마침 무서운 대적이 생기어서 내던지고 달아 난것이 아니냐고 하는것입니다。

(둘재)겨울에는 먹을것이 자연귀해질것이므로 그러케나뭇가지에 걸어두엇다가 먹는것이아니냐고하는것입니다。

(셋재)육식을 하는 동물은 반듯이 먹을려고만 잡는것은 아니다。무엇을 잡는그재미로도 잡는 일이 만타。그러니까 때까치도 다 먹을수업도록 한꺼번에만히잡아드린다。그래서 량이차게먹고 그나머지를 나무ㅅ가지에 걸어놋는다는것이다。

이중에서 어느말이 올흔지알수업습니다。대개는 이런경우도잇고저런경우도 잇서서 세말이다 어느정도로 들어맛는 것이라고도 말하는 학자가잇습니다。여러분혹때까치의 그런작란을 보신일이 잇습니까? 좀더주의해서차저보십시요。

거미와도마뱀이 서로싸웟습니다

일본내지『야마나시』현『사나논누마』라는 동리에서 생긴일입니다。도마뱀한마리가 돌담틈에서 살살 기어나왓습니다。그러다가그만 머리가 거미줄에 걸려버렷습니다。

거미가보고『이게웬떡이냔』하고서 쪼차나왓습니다。도마뱀은 붓들려서는 큰일나겟다해서 거미하고 두시간동안이나 싸왓습니다。그러다가 온몸을아리를 거미줄에 감기고마럿니다。거미가 이겻답니다。

십팔년 동안을 안먹고사는사람

영국의서울『론돈』에 십팔년동안 아무것도안먹고 사라잇는 할머니가잇습니다 올에 예순두살되는『호ㅡ안』라는 부인입니다 이이는 지금부터 설흔여섯해전에 애기를나엇는데 그때부터 원일인지 밥이목구녕으로 잘너머가지안허 고생을하다가 십삼년전부터는 아주밥을못먹게되어 버렷습니다 그래서 어떠케할수가업서 차하고 과실만짜먹고삽니다 이런것만먹고산다니 좀이상합니까

나이여덜살인데

키가오척오촌、몸무게십사관 쇠망치들고 아버지일돕는애

이제 겨우 여덜살밧게 안되는데 키가다섯자다섯치 어른키만하고 몸무게도 십사관이나되는 아이가잇습니다。이애는 마산부금정(馬山府錦町)에 사는데 아버지는 자동차고치는 철공장을 경영하는 박효근(朴孝根)씨의둘째아들 상목(商穆)군입니다。키가크고 몸이크니만침 기운이세어서 직공들틈에끼어서 무거운쇠망치를들고 뚝딱 뚝딱 일을참 잘한다합니다。

그런데 상목군은 갓낫슬때는 보통애와가탯대요 그러다가 두살적부터 별안간 작구작구커젓는데 아버지어머니가 이상스럽게 역여 병원엘가밧스나몸에 아모병도업다구 하드랍니다

그래지금 입고잇는양복은 열여덜살먹은 중학생이 입는것을 입고 신발은 어른것을신고 밥도어른밥만큼 먹는데 아직 만딸세가못되어 학교에못다니고잇습니다。그애어머니께서는 우리집에 대장부가 낫다하고 아주 자랑하신답니다。

사진=바른쪽은 여덜살먹은애、그엽헤선아이가 박상목군입니다。뒤에선이는 키큰어른입니다。자 대어보세요 얼마나큰가

입뿐아니라 손도말한다

사람은 입으로만말을 사고 사는것도 아니랍니다。이러케말을하면 깜작놀라시겟지요 그러나사실로 속으로도 입만 못지안케 말을 할수가 잇답니다。그러케 손ㅅ짓으로 흉내내어 하는 말은 결코 아니거든요。지금으로부터 약 일백팔십년전불란서의 어느 기사(技師)가 사진에 보시는바와 가치 손짓을 가지고 서양의 반절을 꾸며냇습니다。그것이 그로부터한 몃십년뒤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귀먹어리와 벙어리에게 그걸 가르키게 되얏습니다。입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손을주어엇다 폇다해서모든말을 다하게 됩니다。그말을 가르치어『손으로하는말』이라고 이름지엇습니다

옛날이야기

신라 임금님

[..]平先生

[..]내종임금님 [..]러 쉬여섯 [..]입니다。[..]임금님 [..]서나 [..]이 [..]도가 [..]州)

이엿습니다。신라는처음부터 내종까지 경주 서울을 그대로 가지고 잇섯습니다。

신라임금님중에 가장잘난어른으로 말하면 세분이 게십니다。한분은 진흥대왕(眞興大王)이오 한분은 무렬대왕(武烈大王)이오또 한분은 문무대왕(文武大王) 입니다。

진흥대왕은 박혁거세로 부터 이십사대(二十四代)의 왕이신데 일곱살에 즉위하야 마흔세살에 돌아갈때까지 삼십칠년(三十七年)임금이 되신 동안에 큰일을 만히 하섯습니다。안으로는 문화(文化)를 빗내고 박그로는 땅을넓펴한강(漢江)가에까지 이르게되엿는데 그사적을 적은비석(碑石)이 오늘날북한산비봉(北漢山碑峰)에 서서잇습니다。

무렬대왕은 오늘날 충청도(忠淸道)와 전라도(全羅道)에 잇던 백제(百濟)라는 나라를 처서 업새고 문무대왕은 오늘날 북부조선(北部朝鮮)과 만주(滿洲)에 걸처잇던 고구려(高句麗)라는 나라를 처서업새고조선반도(朝鮮半島)를 신라가 혼자 차지하게됏습니다。

무렬대왕 이전에는 조선안에 세나라이잇섯던것이 문무대왕이후에는비로소 신라라는 한나라가 되고 말앗습니다。

사진은 오릉(五陵)인데 혹은 사릉(蛇陵)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건 신라시조 박혁거세내외분과 남해왕 유리왕 파사왕 다섯분의 능입니다。

애기童話 菓子

李永哲

서울 갓든 아빠가 과자를 한봉지 사가지고 왓습니다。

그래서 종배이는 과자를 봉지채 들고서 하나 하나 야금 야금 맛잇게 먹엇습니다。

한봉지를 다꺼내먹고 단한개가 남엇슬때 건넛집 문간방에사는 입분이가 놀러나오다가 종배이가 과자를 먹고 서잇는것을 보고는쭈루루 달려와서 종배이가 먹고잇는 과자가 먹고십어서 먹고십어서 작고 작고침을 삼켯습니다

종배이는 자기는 스무개 열개 설흔개나 먹엇스니까 남은것 한개만은 과자를먹고 십어서 침을 삼키고잇는 입분이보고 먹으라고 줄가하고 생각을 하엿습니다

그러나 금방 또 입분이를 다 주는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절반가량은 자기가 베어먹고 남어지 절반만 입분이를 주겟다』하엿습니다

그래서 종배이는 자기가 들고잇는 과자를 절반을 썩 베어 먹엇습니다 그것을 보고 입분이는 또 침을 삼켯습니다

그러나 종배이는 남은반쪽각을 또 입분이의게 주지 아니하고

『이걸 또 반을 내서 절반은 자기가 먹고 남어지 절반만 이뿐이를 주겟다』고 하엿습니다。

그래서 또 반을 떼어베어 먹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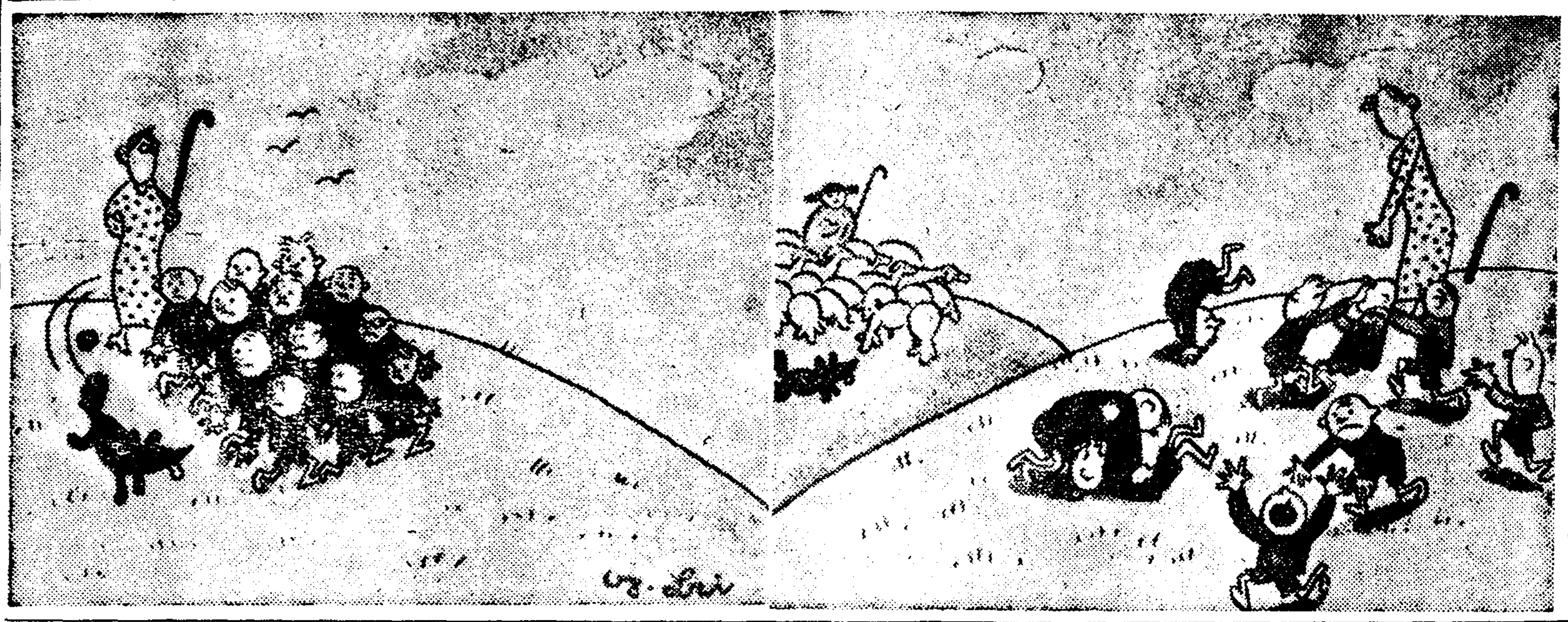
그때도 입분이는 침을삼켯습니다。

이러케 종배이는 절반또 절반 작고 작고 절반씩베어먹고 나니까 나종에는아주 새끼금만하게 남엇습니다。그래 종배이는

『이거야 넘어 적어 어떠케 난훌 주나。에라 나나 먹고 말자』하고 자기가 마저 먹고 말엇습니다。

세상에는 종배이 가튼 어린애가 얼마나 만습니까。비단 어린애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씨를 가진 어룬들은 얼마나 만습니까。

생도와목장의개



선생님말 잘안듯는애를 양치는개가 정도식힙니다

동요 새보기

浮石公普二男 李沖植

一、후여ㅡ 후여ㅡ
이밧저밧 후여후여
우리논에 오지마랑。
새야새야 참새떼야

二、후여ㅡ 후여ㅡ
이산저산 후여후여
우리들은 어찌하노
네가와서 다먹으면

三、새야새야 착한새야
우리동무 조흔새야
제발제발 오지마라
너쪼기에 목아프다。

우리애기

(金泉公普四女) 金東淑

아가아가 우리아가
자장자장 잘도잔다
우리아가 잘자는대
쥐도새도 울지마라
입분애기 잘자는대
뭇ㅅ꿈을 꾸며자나
울ㅅ고운옷 꼿바테서
춤는추을 꿈을꾸지

우슴단지

약갑슨못냅니다

병이 다나허가는 병자를 의사가 보고서

의사『당신의 병은 내약으로나혓다기보담도 부인의 정성스러운간호로 나혓습넨다 부인께 감사한말슴을 올리시요』

병자『그러니까 말슴입니다 선생님의 약갑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사『그건 뭇슨소리입니까?』

병자『병도 낫게못하고 뭇슨염치로 약갑을 달라십니까?』

날짜뭇는이유

조카『오늘이 몟친날입니까?』

아저씨『제손에 신문을 쥐고안저서 멧친날이지도 모른다는 말이냐?』

조카『이건 어제께 신문입니다 :오늘날짜가 거기 적히어 잇슬리가 업습니다』

아저씨『응、무어?』

칭찬실흔옥희

어른『옥희는 참 착하단말야、어른의 말도 잘듯고……』

옥희『저는 착하지 안해요。인희가 착하지요』

어른『왜 그럴리가 잇나?』

옥희『아냐요。저는 인제십부름하기실혀요』

新銳한眼科治療劑

스마일 ルイマス

眼은 날카로운것만이 조흔게아니다!

强하고그리고健全하지 안흐면안된다!

스마일은 酷使에疲勞된 眼에愉快한休息과 淸新한活力을주어서 明快한視力과 健康한 瞳子의光彩를 가저옵니다! 近代人이 愛用해마지안는所以는 여기에잇습니다。

스마일은 淸新且合理的인 眼科藥으로서定評이잇서、結膜炎、角膜炎、眼精疲勞、도라호ㅡ므等에 奏效함은 勿論이고、眼의疲勞、充血의回復에 爽快한效果가잇고、眼內의淸淨化、瞳子의明朗化에도快效를認定할수잇습니다。卽視力保全과眼의健康增進에不可缺인所以입니다

醫學博士 中村榮先生
醫學博士 仁藤隆作先生
推奬

SMILE

(定價) 二十五錢・四十五錢・藥店에잇슴

總代理店 東京・大阪 株式會社 玉置商店

狀과將來 (4)

金廷漢

아조 적은 筆者로서는 새 (…) 붓그러 가、自己의淺學을 하는同時에 이巨大한 題目에 對한文價를 어떠케 淸算할까를 여러날을두고 焦慮한남어지 細流를 가리지안는 編輯者의厚意를 저바리기도 어렵고 또 이方面에 無誠意한 筆者에게는그야말로 曲突徙薪의 조은忠告도 되는지라 言語學界란말을 내맘대로 朝鮮語學界로 範圍를 주려가지고 管見의 붓그러움을 무릅스고 敢히 붓을 드는바이다

그러나 筆者가 적는바 말이 朝鮮語學界에 對한 付託이라기보다 도리여 朝鮮人의 한사람으로서 朝鮮말에對하야 日常 생각하는바에 지나지못할것을 豫告해두며 特히 初等敎育者란 處地와 未熟한 文藝學徒의 見地에서붓을 끌고나가겟다。

言語學에對한 풋내나는 解說은 그만두고 朝鮮人의 한사람으로서 우리말에對한 現狀과그 將來를 생각할때 甚히 답답한바가 만타。

우리는 (太)(古)의 埃及文化를 안다。世界에서 가장먼저 생겨난 埃及文字가 지금은 어떠케 되엿다는것과 그처럼燦爛한 文化를가젓든 埃及人이 오늘은 世界서最末位를 免치못할 文盲民族으로 轉落햇다는 事實을 認識하며、우리말과 우리文化에 對한 이따民衆의 關心을 살펴볼때 우리는 더욱 가슴이 무거워짐을느끼지 안흘수업다。良心잇는人士는 모름직이 昨非를깨닷고 焦頭爛額의 勞를 겨지안흘수업슬때다。

더구나 이方面의 一部重責을 가진言語學徒로서는 단지 文壇人에게만 提議할것이아니라、全民衆을向하야 紹介해야될것이다。

一、初等敎員으로서。

特히初等敎員이란 項目을 내세운것은 여러가지理由가 잇겟지만 그중에서 두가지의 커다란理由가 잇기때문이다。그하나는『敎育의힘』이 무섭게 크다는것과 다음은 (現)(下) 初等敎員의 朝鮮語에對한 關心이 넘우나 적기때문이다。

敎育의힘이、至大하다는것을筆者가 應應히 論하지 안는다도 一般이 다是認하는바로서 普佛戰爭에서 大勝을 하고 도라온『몰트케』將軍이『아!偉大한閣下의 功勳이여!』하며 歡呼하는 數萬群衆의 아페서 가만히 말에서 내리며『오늘의獨逸의大勝戰은 余의 功績이아니라 오로지小學敎員의 힘이니라』고對答한 一言을 미루어보드라도這間의消息을 能히 斟酌할수잇슬것이다。

民衆敎化에잇서서 이가티重大한歷力을 가진 初等敎員이朝鮮語에對하야 關心을 가지고안가지는것은 朝鮮語의 將來를爲하야 至極히 重大한 問題라고 아니할수업다。더구나 그들의對象인兒童이 이따의將來를 左右할새로운 世代人이란것과 그누구의 訓戒보다도 先生님의 訓戒를 가장信任하고 또 그대로生活해나갈 ——말하자면 (人)(生)의 純眞한 떡님이라는것을 考慮、初等敎員의 責任이 더 니욱重하다는것을 깨다를수잇다。

그러면 이러듯한 重責을 가진現下初等敎員들이 朝鮮語에對하야 果然 어떠한 程度의關心을 가젓슬까?

그러나 筆者는 이것을 檢討하기前에 便宜上、現行普通學校規定第十一條의 一部를 먼저들어서 現在普通學校에서 施行해야될 朝鮮語의 指導限界를 明白히 해두겟다。

(普通學校規定第十一條)

『朝鮮語는 普通의言語、日常生活에必要한 文字及文章을알리고 正確히 思想을 表彰할能力을잇게하고 兼하야 知德을啓發할것을 要旨로함

朝鮮語는 처음에 드發音을 발리고 諺文의語法、書法、作文을알리고 漸進하야는 日常生活에必要한文字及普通文에 미치게하고 또 (言)(語)를 練習식힘 等等。』

勿論 어떠한 일이든지 모다理想이란든가規定그대로 圓滿히成功되는수는 적겟고、더욱 敎育問題에잇서서는 그러하겟지마는 오늘날普通學校兒童들의 朝鮮語에關한知識程度란 筆者가 아는限에서는 다른學科에比較하야 너무나低劣하다。이것은 全然誇張도아니고、悉心의所以로된 筆者의 誤謬도아니다。

來日모래면은卒業을할 上級學年兒童으로서 規定에 明示된바의 日常生活에必要한文字와普通文을理解와使用能力은 말할것도업고 위선發音그것부터가 아조 틀린點이 수두룩하다。

그러면 이것이——이寒心스런現狀이 누구의罪일까? 筆者는 다시 朝鮮語에對한 初等敎員의關心問題로 돌아가겟다。

그리고 오늘날 普通學校兒童들에게 朝鮮語知識이低劣한 (責)(任)의 大部分、現下 初等敎員들의 이學科에對한 關心不足으로 돌린다。

筆者는 일즉 어떤敎員으로부터 이러한不平談을 들엇다。갈아사되、——『그 시시한 朝鮮語敎員이 나를 월하를주엇겟지오。그래서卒業때 사온해에도 안나갓서요』월하는 乙下의誤讀이고 사온해는 아마謝恩會인 셈이족 그모양하고서도 아주바로『내가一種敎員이오!』하고 다닐뿐아니라 事實上 그러한地位와 權限을 行使하고잇스니깐 勿論 初等敎員全部가 그따위 劣等兒的 致意程度야 아니겟지만 그點을 미루어서 現下初等敎員의 朝鮮語에對한 關心程度의貧弱을 헙잡드라도 無可奈何이다。

漢詩

題、秋夕 押明

佳作 淸州郡甑坪面柿木里 吳華秀

月帶秋光分外明·
良宵一醉百憂平·
金風蕭颯虫吟急·
玉宇崢嶸夜色淸·
麥醪登席酬佳節·
葭露橫江念友生·
古往今來只如此
歐陽何事賦秋聲

紀行 匡廬歸來記

일허버린故鄕을차저서 (二)

李秉珏

도라온不肖子

수나! 나는 放浪하야것소。엽한時—여긔는 湖北線의終點 安東이요 내가서울서 車에올라 實足四十二時間만에 나리엇소 점심때가 다되엇는데 아즉나는업끌도 씻지못하고 車안에서 자다가 일어난채로 그냥거리를것고잇소 勿論 아침도먹지안헛소 그러나 조금도 시장한氣는업고 그저머리가 휭나리쯔이는 가을볏살에 눈이시오。

나는 여기서自動車로百餘里險路에시달릴것을 생각하니 코에는까소링의 야릇한 냄새가 숨어드는것갓소。

내가 어렷슬때 이곳普通學校엘 다니엿이 잇스므로 떠난이은곳이요 뿐만아니라 四에서멀지안흔 東쪽 바로洛東江邊에잇는 城山이라한마을은 나와 떠날緣이 깁흔곳이기도하오 이마을에는 新羅때의 큰塔이잇소。그러고 누님의집이잇소 이집近處에는 無窮花나무가 둘너싸고잇는데 내가어렷슬때 妹兄을따라서 놀던곳이요 이집 무궁화씨는누님이나에게 보내주어서 우리집前庭마당에 심어두엇소。벌서그것이 十五年前인가보오。이마을마을에 東興學校라는것이 잇섯는데 그때敎舍로 쓰이던집은 하로는밤사이에 독갑이들이지엿다는 九十九間의 큰집이엇소。이學校엔 敎師들이 先生으로 와서 잇섯소 그리하야 이學校에서 배우던나의妹兄은 酒客과 더부러 洛東江邊을 거르며『酒歎水노래』를 부르든것을 내가 보앗소。

지금은 커다란敎舍만이 남어잇고 酒客은 벌서 東海岸에서 漁業을 차저보러가지 오래며 妹兄은 지금 누님만이 이마을에 남어잇소。나 時間關係로 차저보지못하고 그집앞을 그냥 지나게되오 집엽가면 어머님은『너 누의를 차저보앗느냐』하실테니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미리걱정이되오 여기서 自動車로 왼終日——午後네時가넘어서집엘到着하엿소。

아버지의 수염이 퍽도히여젓소。아마 故鄕에와서 내가놋하지안헛든것은 아버지의 수염이엿소。七十이 가까우신 아버지의 수염이 히다는게 무어奇怪하겟소 그러나 나는 오래동안 客地에 쏘다니며 아버지의 수염에對하야서는 한번도 생각하여보지안헛소 實로 不肖莫甚한아들이엿소。이러한不肖子는 지금히수염의 아버지아페 꾸러안저그의얼굴에 그려진주름살을 살피고잇소 不肖子가 아버지에게 올린것이라고는 銀行에서어더쓴 빗밧게는 아모것도업소 十年동안에 그빗을가프랴고 허우덕어리던 아버지는 아모말슴도 업서 힌수염만을 쓰다듬고게시오『큰돌것이되리라』—이것은 나에게가지시던 아버지의期待엿소。그러나 그의아들 지금돌어안저잇는 우리 子息은 벌서옛날아버지가期待하시든子息이 아니요。

오래人만에 도라온아들이 비록不肖子라 하더라도 귀여운모양이요 아버지는 三年前에 아버지께서하로는 育英學校가 서울에왓다가 고향에오셧드니 七十이갓가울도록 한번도 다그만두고 다만내가단여오기를 바라시엇소『어떠케겐 學校구경이나 시켜주어야하겟다』하시며 자식이라고는 우서지우지는못하고 나를 부르시엿소。그대는 우서지도지를 아서서 한번 학교구경을 시켜드려야겟다하면서 서울구경 다그만두시고 다만내가 모든 이엇소 나…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앗소。내 피주름살—그리고 어머니의눈물 나는그모든것을 잘알고잇소。어렷슬때 모양이 어머니는 어린놈의머리 아버지는 다정도하시든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러케귀여워하던 몸 쓰다드므며 어머니는 님을가 피우고 어머니는 님을가 ··· 그자식은 父母의 할두지— 나를 닮어달라는不肖子가 아니엿소。…거정을시키는不肖子가 되엿 나의 눈물— 어머님의 말을 그 눈물속에서 … 잘드러야겟다고 눈물속에서 微笑를 띄우시엿소。그 微笑는 어머님의 조고만 幸福의 表示엿소。

가을文學 印象기픈 ④

가을밤달ㅅ빗의哀想

웰텔과에드와르뜨의두靑年

金希榮

요지음 나는 달비체 길림인지 外出하다가 밤늣게도 라옴이 普通이다 그때마다 寂寞한 이서울에서는 三四十分遠거려야만 한다。그러나 이말을 듯든 親友들이여 가엽다고 同情하지는말라。이 짧은時間은 나의 가장 아름답고 깁흔 時間임으로 그것은 街路樹들틈으로는 거리모퉁이 寂寞한 松林보다길을 거러올때 달비치 이世上의 왼갓꼿을 숨여둘드시 나에게 가장 만흔 親密感과아름다움을 느끼게하는 그짧은時間이 나의외마음에 숨여드는때문이다。

×

피ㅣ데의월렐、슈ㅌ룸의에드와드 이두作品을 읽은것은 數年前이다。갓 故鄕에 도라온 나로서는 옛날의 山川을 回想하면서 이作品속에 展開되는限업는悲哀와 幸福을 享樂한다。以今 나의靑年期는 그것을同하고잇스나 이두靑年으로부터 바든如何은 더욱더욱 기퍼지며 그것으로因하야 過去에 對한愛着心은 限度에 아지못하게 커짐을깨닷는다。

월렐·과·에드와드 그들은 詩人들自身과 한가지로 激熱한情熱 深奧한內面性 絕對의 眞理를探求하는 慾望의 主人公이다。그러나 그들의 가슴속에는 悲哀한運命의 原因인 感情의 超過와 그로부터 分離하려하는 두힘이 서로相克되고 잇섯다。그들이 求한사랑은 이超過와相克을 緩和하지못하고 도리혀 助長하엿다。菩提樹아래 깨끗한물솟는우물엽 世間떠러진 숲속의 숨잡는한 秘密의 속삭임도 그들의 運命을 어찌할수엇섯고 반다시와야만할 離別은 그들의 젊고 아름다운魂을 狂亂에 빠지게하고 말엇다。

×

월렐이 사랑하는사람을 떠나기前 어느날 그의짧븐一生에서 다만하나인 親友에게 내가 두時間 或은 세時間 그女子의겨테안저서 그女子의몸 그女子의擧動 그女子의말의 天國과가티 아름다운表現을 질거워하고 잇스면 그리고 그동안에 漸漸나의모든官能이 緊張하여지며 눈아피 어두어지고 거의 아무것도 들리여지지아니하고 暗殺者와가티보히는 사람이 나의목을 졸느고 心臟이 몹시鼓動을치고 急迫한 五官의活動이 끄너지려고할때 그리고 이紛紛가 더하여질때 나는 때때로 自己가이世上에 잇는지도 모르게됩니다 나는 떠나지아니하면 가지아니하면 아니됩니다 이러한때 나는 먼 들가운데를 헤매이여 다닙니다。險阻한山에 오르며 길업는풀속 나의몸을 傷하고찟는 荊棘을거두어 조금만한길을 내면서 것는것이 이때의 나의기쁨입니다。

×

이러케 그의苦痛을 告白하엿다。

맥칠後에 그는 마음에맛는溪谷 조용한 시내가의 숲속에와다 사랑하는사람과 질거이여오든곳이다。太陽은 莊嚴히지고 잇섯다。明日이면 떠날그에게는 더욱더욱 그러케보이엿다。

달이 말근가을하날에 올녀와 고요한숲속을비칠때 사랑하는롯테도 그곳으로왓다。

롯데는 마음대로 되지아니하는 이世上을 斷念하고 반다시 잇스리라밋는 來世에서 이世上에서는 맛지지못한것을 밧칠수 잇스리라고 約束한다。웰렐은 다만 그女子의 무릅위에업드리여 꿋침업는 눈물을 흘릴따름이엿다。

이튼날 해가오름과함께 그는 혼돈한 精神과 어두운感情을가슴속에 품고떠나게되엿다。

×

에드와드는 一年後 多少나마 地位가오르고 生活의餘裕가 잇게된 只今、안게리카를 永遠히抱擁할수잇다는 希望을가지고 故鄕에도라와왓다。

그가 탄馬車는 愛人의집庭園의 뒷문을通過한다。저나무의小門은 只今은 月光의길우에 그림자를 던지고잇다。한줄기의光線이 庭園속 어두운 숲속의젼은 편지우에떠러지고잇다。——안게리카는 어데잇는가。——언제인가 그女子는 여기에도 안저잇섯다。그리고 부드러운손 뜨거운입술을 나에게 맥기고잇섯다

그러나 그女子는 벌서 다른男子의 안해가되여잇섯다。

에드와드가 任地로 도라온後 縢縢하고 悲慘한生活가운대에 때는흘너갓다。때때로 어린아해의 목소리로 찌르는듯이 鄕愁가 襲來하여 그를 夢幻의迷路에 먼孤獨의속으로 지버너헛다 !조용한庭園—正午의太陽이——비치는湖上—月光속의 고요한숲속— 두손을 그女子에게向하야 펼치엿다。苦痛과情熱에 말매히면서 그女子의일홈을불럿다。그러나 그가 불으는女子는 오지아니하엿다。벌서 오지못하는 사람이엿다。夕映과가치고흔 追憶의 戀愛속에서 또한번비치여지는 그女子의魅力은 只今 다만에드와드의 가슴속에서만 차저낼수잇섯다。

×

웰렐 에드와드 이 두靑年의 사랑은 幸福한사랑은 아니다。그러나 가장아름답고 情熱的사랑인을 누가否認할수잇스랴。(十月十四日)

雜記帳

言語에서차즌 血緣婚姻 (兄弟의稱號)

爾雅釋親에 男子先生爲兄後生爲弟라고 하엿스니 兄弟란말은 男子에 制限된 稱號다。지금의 漢語로 兄이라는 阿哥 乃至 哥哥나 아우라는 兄弟도 男子에게 限한 稱號지 女子에게까지 通用되는 稱號는 아니다。

그런데 왜 朝鮮서는 女子들끼리도 兄이니 兄弟니하는 말을 쓰는가? 本來 朝鮮語에는 男子가 女子同氣에 對하야 누의、女子가 男子同氣에 對하야 오래비라고하고 男子同氣間에나 女子同氣間에는 꼭가치 언니 아우로써 일럿슨다。그러니까 兄이란 漢字를 언니란 뜻으로 飜譯하야 가지고 언니란말의 用例를 따라서 兄이란말도 女子同氣間에까지 轉用된 모냥이다。다른言語에서는 그런말을 어떠케 쓰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 보기로 할까? 라틴語의『푸라타』는 男子에 限한 稱號요『소롤』은 女子에 限한 稱號며 아란語의『아키아』는 男子에對한 稱號요『아키레이』는 女子에對한 稱號요 和蘭말에도『아니』는 男子에 對한 稱號요『アネ』는 女子에 對한稱號다。모도다 漢文式으로 男女를 딸아 稱號가 다르지 朝鮮語式으로 長幼를 딸아 稱號가 갓지안타。

그러나 몰간의 古代社會에 記錄된 하와이土人의 말에는 男子나 女子나 兄을『카이크아이나』아우를『카이카이나』라고하고 男子는 누의를 손위나 손아래나『카이크와헤에나』、女子는 오래비를 손위나 손아래나『카이크나나』라고 부른다고 하얏다。이하와이土人의 稱號야말로 朝鮮語와 신통하게도 꼭 가튼것이다。그런데 몰간의 말대로 쫏는다면 이 하와이土人의 親族稱號는 血緣家族을 表現하는것으로서 푸날루아家族으로만 進步되야도 벌서 男女의 性別로 使用된다고한다。그가 들어 노흔 아메리카土人 이로코이 種族의 말만 보더라도 내兄은『하게』사내아우는『하가』、女子兄은『아제』、女子아우는『가가』로되야 男女를 勿論하고 그 對象의 性을 쪼차『하게、하가』『아제、가가』를 쓴다는것이다。하와이土人의 親族稱呼와 朝鮮語의 그것이 갓다는것을 一種의 偶然으로만보아 버릴수잇슬까? 朝鮮語에도 太古血緣婚時代의 親族稱呼가 어떠케 한끄트레이 傳하야 나려오는것은 아닐까?。(篠山)

創作과態度

世界觀의再建을爲하야 (三)

任淳得

그러므로 作家에잇서서 앎에서 말한바와가티 그가歷史的社會的人間이라는 點에서 뿐아니라 그가 그의文學에 文學上의方法을 導入함으로써 無意識的『原始的』創作態度를 持續하기를願하지안는限 가장重要한 作家以前의 課題는 世界觀의 確立이 아닐수업다。이말은 決코 哲學的修業을 마치지안코는 作家로서의 出發을禁遏되여야할것을意味하지안는다。그러나 藝術家의 藝術的衝動은 거이本能과가티、그의藝術家的인것을 낙드게하고 어느말일래야 말할수업는 成長을 豫想하게하는것이면 그럴수록더구나 우리의 處地에잇서서는、作家의衝動의『原始的』出發은 거의 不當한것이 아닐수업스리라고 생각된다。우리文學의 無雜한 몃몃의 評論家를 除外하고 幹部리文學의身體의어섯는缺陷에對한刀圭者들 自己에서 發見한다면、그는 世界觀에依한 武裝을 게을리하여서는 안될것이다。優秀한 世界觀에서만 優秀한方法을찻는다。

어느면에서는 作家에게서 世界觀을 拒否하는소리가 實狀두렷드리고잇다。作家는 勿論 哲學者는아니다! 世界觀은 그러나 哲學者의專賣的인 王物이아니다! 世界觀은 文化人의資格證明따름이다。(이제 가장 尖銳한對立이 두世界觀의사이에 김흔分裂을 짓고잇다。이옥고 進步의軍隊가 蒼空과大地에 울릴것이다。腐敗한者자의 世界觀은 退擧의사슬에 얼키어 歷史의摩擦에서생긴 구렁에 넘어저잇슬것이다。어느 世界觀이 우리의 世界觀이라야할것인가는 明白하다。)

作家에게서 世界觀을 拒否하기를 主張하는 意圖는 그動機에잇서서經驗的이아니면 惡意이다。그것은作家의 去勢를願하는呪語다。

그러한사람의文學은 기껏 아마 甲順이와 乙殊의喃喃한 耳語일것이다。花月에보내는 강마른 詠嘆일것이다。뻬데리아에가득한 눈물흘린것이다。앙상한肋骨의 불룩그리는 動搖일것이다。그러나 文學의 對象은 푸로메토이스로부터 크림·사무긴이쁘로부터 아리사……헬만아니라、白頭山에서 린키山脈에까지의、그倭小한『文學者』의近視眼을 壓迫하는 社會와 個人과의 動態다、물결이요、그의雲霧의瘴域을 헤신하는 雷鳴이오、法則과 個人의 싸홈이오、雷霆이오、全體에再하야 트라괴디ㅣ、個個에再하야、코메디、파르스、뜨라마이오 感情과生活의 抑揚……이다。이러한 巨大한世界 微細한文學의 對象의앞에서 作家가 이를테면『唯物論·辯證法的唯物論으로부터 어느 自由를 엇는다면 그는 觀念論 乃至 俗流唯物論의 捕虜가되는』自由를 엇고말것이다。

그는 빨자율·리얼하기를 조와하지만 우리가 그에게서 레아리리—를 發見하는대신 빨작 自身은 그랑디영감을 미워하면서 死滅하여가는 中世에의 눈물을 흘렷든것이다。

科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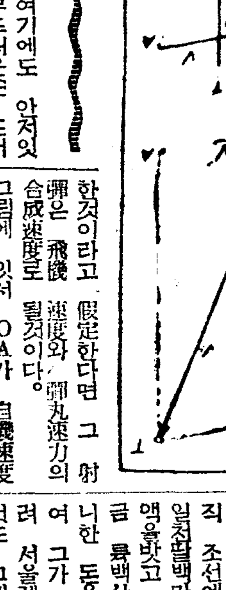
機上의機關銃射擊과 그射擊照準器

固定機關銃은 方向을 마음대로 돌릴수 업는 機關銃으로서 胴體의 前部、發動機의 上部、또는 翼內에 裝置하는데 혹 一挺만으로 된 것도 잇고 또或 左右兩挺으로 된 것도 잇다。射擊은 普通 飛行機操縱者가 스스로 行하게되니 卽 自己의 飛機가 敵機에 向하게 될 境遇 操縱桿에 부튼 發射挺子를 눌러서 發射시키는 것이다。機關銃의 前方에는 勿論 프로페라가 돌아가고 잇다。그래서 彈丸이 프로페라翅翼의 사이를 뚤코 나가도록 프로페라主軸의 廻轉과 서로 關聯시키어 발아쇠를 움즉이게 하는 所謂同調裝置란것을 必要케 된다。그러나 그러한 裝置가 잇슴에不拘하고 不便한것은 事實이다。그래서 最近에는 프로페라를 避한 位置의 것이 늘어가게 되얏다。固定機關銃을 가지고 敵機를 射擊할 境遇에 銃身은 그目標가 나아올 未來位置에 向하도록 飛機를 操縱치 안흐면 안 된다

그 角度는 敵機의 速度、進行方向、彈丸의 速度에 依해서 決定된다。이目的을 爲하야 製作된것中 가장 簡單한 照準器는 環形照準器다。그것은 目標의未來位置를 中心으로해서 彈丸이 날아가는 經過時間內의 敵機移動量을 半徑으로한 圓에 끈어가지고 敵의 現位置를 쏘는것이니 卽 敵機가 이편과 直角의 方向으로 行進할境遇에는敵機의 머리를 環形의 外鐶에서 차저내어 照門鏡의 中心과 照星球를 連한線을 敵機의 行進方向에向하도록하는것이다。

旋回또는 遊動式機關銃이라는 것은 自機에 對하야 銃이 俯仰이나 旋回가 可能케 된것으로서 이런種類의 機關銃은 小型飛機에는 同乘席에 二銃併列한것 一挺이 裝置되고 大型飛機에는 胴體前後端에 各一挺또는 胴體後部下方에도 窓을열고 一挺 裝置되야잇다。旋回機關銃으로 移動敵機를、射擊하는데는固定銃에잇서서 考慮된 敵機의 速度外에 自機速度의 어떤方向分力을 한께 考慮치 안해서는안된다。위선 움즉이고 잇는 自機만을 생각하고 目標는 靜止한것이라고 假定한다면 그 射彈은 飛機速度와、彈丸速力의 合成速度로 될것이다。

그림에 잇서 OA가 自機速度V、OT가 彈丸의 平均速度V라고 할것 가트면 射彈은그 合成速度V로서 目標T에 達할것이다。卽 銃身을 OP에 向하야 T를 쏘면 命中케 된다 OT는 V와V와角TOA만 와V는 알려잇는것이니까 角TOA를 求하는 照準器가 必要한것으로서 윈드베이사이트는 그것을 自動的으로 엇게된 裝置다。아래ㅅ그림에서 AB는 O를軸으로 해서 回轉하는것으로 飛機가 나아갈때 空氣抵抗때문에 B는 飛行方向과 一致해서 角TOA는 옷그림 TOA와 同一케 된다。



아래그림의 A를 照星으로하고 OA의 기리를 飛機의 速度V에 比例하고 OO의 기리를 彈門으로 하고 OO의 기리를 彈丸의 平均速度V에 比例하도록 定하면 OOA는 照準角이 된다。그러나 實際에잇서 敵機도 움즉이고잇다。그러니까 前述의 環形照準器의 理致에 依해서 기對한 修正을 하지안해서는안된다。(一記者)

中篇小說 人生特急

盧春城 作 崔根培 畵 【12】

淸算 (一)

영순의 집에로 든 설뜩 평장살짜양관이잇다。이곳사람들은 이집을『아방궁』이라고、놀우고、또는 처음 이집을 지을때 팔십만원을 들여짓느니 오십만원을 드려、짓느니하고、소문이、굉장하엿다。한우간 서울에서、제일로 손을 꼽는 큰양관임에는 틀림이업다。

이、양관집주인은 영순의 삼촌되는 민영식이다。그는 원래도、백여만원의 재산가이엿지마는 그가 동경서 경응의숙『리재과』를 졸업하고 남경과 상해를 둘러 조선에 도라온후에는 무엇보다도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또는 조선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방을 주어야하겟다는것을 깨다럿다。그래서 그는 몬저 돈벌기를시작하엿다。

그가、제일로 착수한것이 삼척(三陟)금광이오다음으로 착수한것이 장진(長津)금광이엇다。이 두금광은 그광맥이 무진장으로 숨어잇슬뿐만 아니라 광석의 성분이 량호한것도 조선의 제일이엇다。민씨는 채굴을 시작하여 여러가지 고생을 하여가며 삼년동안에 이백여만원의 리익을 엇고 금년봄에드러서는 이 두금광을 모두 일본내지 재벌에게 파라버렷다。삼척금광은 아직 조선에서 그 례를보지못한 금 팔백오십만원이라는 놀라운 금액을밧고 팔엇고 장진금광도일금 륙백사십만원이라는 적지아니한 돈을밧고 팔엇다。이리하여 그가 일금오륙십만원을 드려 서울제일의 큰양관을 지은것도 그리 괴이한일이 아니엿다。

그러나 민영식은 이러케 거액의돈을 손에쥐는 동시에 그는 이돈을 어떠케 갑잇게써볼가하고 생각하엿다。사실 그는 지전뭉치를 절궤속에 집어넣코 밤마다 그돈을 바라보며 신주가티 절을하거나 그러치아니하면 은행에 예금하고 그 예금통장을 날마다 한느님가티 숭배하는 그런 수전노는 아니엿다。그리고 처음에 돈을 몰려고 결심할때에도 자기 일신의 안락이나 호사를 위하여 금광을 시작한것은 아니엿다。그는 돈을 좀모아 만일 큰돈이 손에 잡히면 조선을위하고 또는 조선사람을 위하여 무슨놀릴한 사업을하려고 결심하엿든것이다。

그러나 그는、아직도 나히젊은터이라 맥해전부터 청을 셋이나 어더서 방탕한 생활을시작하엿다。제일차의 첩은 장안에 유명하여 모든 외입쟁이들이 칭을 질질 흘리고다니는 ××권번기생 주홍이엿다。민영식은 이기생을 일금 만원을주고 빼여드려 엘사동안 살림을 하는동안에 이번엔 여학생첩이 필요하여 모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피아노를 잘치고 얼굴이이쁜 박선주라는 여자를 근 이만여원의 돈을 써가며첩으로 빼여드렷다。그러나 민영식은 얼마지나는동안에 기생첩과 여학생첩도 마이 어디고하여 일본녀자를 또 첩으로 데드려서온갓 방탕한 생활을시작하엿다。

그러나 민씨가 이러한 생활을 하는동안에 가정적으로는 결코 평화롭지못하엿다。그의 부인은 남편의 방종을 비관하여 음독자살하고 따라서 집안에 드러가면 자녀들이 늘 우는상을하고잇서서 그는 마음에 가책을 밧지안흘수가업섯다。더구나 첩집에 다니는것도 그러케 간단히 즐거운것만은 아니엿다。몬저 기생첩집엘 드러가면 늘입이 바늘가티 뾰족해가지고 여학생집에만가고 자기집엔 자조 오지안는다고 온갖 바가지를긁고 나종엔

『여학생년의 몸뚱이엔 금이부텃소。그년들은 더드럽지……』

하고 악을썻다。그러나 이와반대로 여학생집엘가면 여학생은 한칭 더 야단이엇다。

『여보、그래 수백명 외입쟁이들이 이리주무르고 저리 주무르는 그 더러운 기생년! 그래 그년이 뭐이 그리조아서 밤낫 그년한테만 부터 잇서요? 에이 드러워 티티!』

하고 침을배앗고 나중에는

『여보그래 당신은 동경가서대학까지 한이가 돈도그만치모앗스면 무슨조혼 사업이나또는사회를 위하여 일해볼생각은업고 그래 밤낫여편네 꽁문이에만 부터서 살 생각이요?』

하고권고까지 하엿다。이여학생의 권고에는 영식도 그만얼굴이벌개젓다。그러나 일본여자한테가면 그여자는 공순하나독을풍이얼굴로

『당신은 조선여자들만 사랑하고나는 늘소홀이 여겨서 꿈에떡맛보듯이 잘뽕수도 업스니……』

하고눈물을 졸졸흘리며 나종에는 보칭을 싸가지고 나가는때가 한두번이 아니엿다。이때마다 그는당신의 가쟁을 밧고 이생활을 어떠케 해서든지 청산하여야한다고 생각하엿다。더구나 자기의친구로 고려백회점 주인인 최성춘이가

『여보게 밤낫 게집에 꽁문이만 따라다닐작정인가? 좀 무슨사업을 하나 해보세』

하고 권고를 바든후에는 더욱 그생각이 심각하여엿다。

女性 十一月號 發賣中

速히注文하시오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定價二十錢(送料二錢)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十一月創作

短篇小說 手風琴—朴泰遠 揷畵·鄭玄雄

短篇小說 痲藥—姜敬愛 揷畵·金奎澤

短篇小說 왜왓든고—朱耀燮 揷畵·崔根培

中篇小說 거리의牧歌—李孝石 揷畵·鄭玄雄

詩 構圖—朱永涉

實話 患者와看護婦 曺敬愛

家庭讀本 完全無缺한解産法 許信

海外女性犯罪綺譚—金汶植

京城郊外 女性하이킹코ー스—黃澳

中國料理製法數種……鄭順媛

가을의毛髮衛生……吳淑根

婦人의衣服과色彩……河英珠

朝鮮八道結婚儀式巡禮(全羅道篇) 金煥泰

空中爆擊과婦人의任務……韓兵人

京城各女學校女先生評判記 京保中保篇★

畵報 晩秋長安郊外所見…… 箕城의晩秋、追憶、丘上의敎會堂、平和의象徵、溪流 朝鮮映畵『漢江』

아침빨래 (讀者小品) 玄愛仁

特輯詩畵報

□가을생각(文)…李殷相 (畵)…洪祐伯

□가을(文)…張德祚 (畵)…崔根培

□休憩(文)…李善熙 (畵)…鄭玄雄

□城址(文)…盧天命 (畵)…金奎澤

女性의「社會觀과人生觀」 崔良熹 반드시 인생이란무엇이며 사회란 어떠한것인가에 대하야 정확한 견식을 가저야합니다……

女性界 스포ー츠小論 金泰浩

表紙·扉畵—鄭玄雄 揷畵—金奎澤 揷畵—崔根培

★海外名女流小列傳 ▲女流飛行家(아미모리손氏) ▲女流科學者(죠리오·큐리氏) ▲女流外交官(코론타이氏) ▲女流政治運動家…宋慶齡氏 ▲産兒制限主唱家…마가렛·생거氏 ▲女勞働大臣…프란세스·퍼ー킨스氏 ☆

婚姻法講座 家庭法律 李宙求

隨筆 倚月空懷……李軒求 落葉은敗殘兵……金慈惠

◇烈女貞氏의魂……車相瓚 ◇쪼차내기를懇請……申鼎言

長安의國際結婚스ー윗홈訪問記 — 記者

妓女區—午前時風景 A記者

世界名作解說·崔載瑞 모ー파상의 山幕

■女性界消息 ■主婦備忘帖 ■海外珍聞 ■十一月의메모 ■옷지맘시다 ◀編輯後記▶

演藝 娛樂

革新公演을하로압두고 女主人公일흔中央舞臺

某孃의除名과配役改編으로

公演은十六日부터三日間府民館서

劇團中央舞臺는 革新後 그첫 公演을 今十六日부터 府民館에서『하이델베르히』靑春回想曲을 上演하기로 萬般準備를다한 지난十四日에 同舞臺의 演技部中堅일뿐아니라 劇界의 人氣者로 일홈이 노픈 某孃이 突然出演을 拒絶하고 마럿다 同劇團에서는 公演日을 아프로 하로압기고 主役女俳優가 出演을 拒絶하엿스므로 劇團會議를 열고 그對策을 講究하게되엿는데 十五日 總會에서 同孃의 除名處分을 滿場一致로 可決하고 이것을 通告하는 한편 그代役을 韓銀珍孃에게 韓孃의代役을 金夢順孃에게로 各各決定하고 밤을새워가면서 部署內編成을 시작하엿다。

이제그眞相을 아라보면 지난 十四日에 前記의 某孃은 演習場에서는 稱病을 하고 病院에 간다는 理由를 부처 일즉이辭退하야 市內某劇場 事務室에가서某幹部와 會見하얏는데 그때 마침 그劇場의幹部室에는 中央舞臺와 友誼的關係가잇는 某氏가 在傍하얏다가듯고 某氏의입에서 同舞臺로 이말이드러가자 그만 某孃이 다른劇團으로 갈交涉을 하얏다는것이 傳播되엿는데 某孃은 이러한 風說을 듯고는 中央舞臺에서 가치일을할수업다고 出演을 拒絶하고말엇다한다

이제 이事實에 對해서 中央舞臺責任者와 南宮孃의 말을 드르면 다음과갓흠데 寫眞은『靑春回想曲』의 練習時에 中央에 선女子가 南宮孃』

中央舞臺延鶴年氏談

글세 이러한 일은 過去의興行劇界에서는얼마던지 잇섯는일입니다 그러나 演習을 마치고 公演에나갈 演技者가 出演을拒否한다는것은 그演技者의 藝術的良心이 問題되는것입니다 그럼므로 우리劇團에서는 總會에서 某孃의 除名을 決定한 今後이러한 不淳한 空氣肅淸시키는 意味에서 斷然處分한것입니다 今後비록 同孃이 復歸를 願하더라도 團體의 威信을보아 絶對로容赦하지안흘 作定입니다

某孃談

다른劇場에서 二百圓의先拂을 밧고 轉身하랴는혐의를 바든것은 원통합니다 今後에 엇더케 하겟느냐고요 演劇을하지 무엇을해요 어듸서요? 中央舞臺로 復歸하랍니다 全然無根한 事實을가지고 동무들이 의심을하는데는 氣分問題이니 저로서도 演出을 拒否하지안흘수업습니다 團體에서 除名을 取消하지안흔다면 그뒤일은 아즉생각하지 못하얏습니다

山水를함께질기는 奉恩寺코ー스

行程도각갑거니와 途中의纛島遊園地

野遊會나 또는 家庭 노리터로 떡조흔 場所다 距離도 멀지안흘뿐더러 東大門에서纛島遊園地까지 軌道車를 타고 가게된다。여기서 車를 내리여서 다시 배를타고 江을건느면 바로 奉恩寺가는 길을 드러서게 되는데 길은좁다하겟스나 먼지업는 길이라 다리도 가벼히 노히는듯 모르게 걸음이 잘걸립니다。四圍에 둘린 논에는 누러케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잇서 부러오는 바람결에 黃金물결을 해치우고잇스니 이사이를 거르면서 結實期인 가을의 實感을 多分히 맛볼수잇스며 農夫와詩人의 交響樂이 여기서 흘러나옴이 아닌가싶다 더욱히 纛島一圓에 有名한 葡萄園이라든지 栗田의 이모든것이 가을의 田園風景을 그대로 그리여 노앗스니 田園의 詩도 예와니면 읊흘때가 업슬가싶다。배에서 約十五分쯤 거르면 奉恩寺에 이르는데周圍에는 아름드리 둘러잇고 수풀이 또한 욱어젓스며 靜寂함을 늣기게되니 塵世에서 부다기엿든 발과 몸을 새로히 씨서바릴수 잇슬만큼 아조 떡조흔 고요한곳이다 法堂뒤山에올라 출렁출렁 흐르는 漢江을 바라보며 부러오는 江바람을 쏘이며 山으로 거닐기도 조키니와 木鐸을치며 佛經을 웨이는 소리 귀에 연연히 들릴때 아지못게라 靈感을 어든듯 마음도거룩해 지는듯하다 또法堂압헤는 넓은뜰과 잔듸가 잇서 짐을 풀러노코 쉬이기도 조코 며 압으로 조곰더 나가면 샛江이잇서 고기잡이와 濯足노리도할수잇다 어느모로 보든지 하로노리를 하기에 滴이업는곳이다 더욱이 距離로 보드라도 멀지안흔곳이니 疲勞를 늣기지 안을만콤 아조 適當한 코ー스이다

行程

東大門(七錢)纛島遊園地(二錢)奉恩寺

車賃 東大門에서纛島往復 四十錢

船賃 八錢(渡船往復)

오늘의 라디오

十六日(土曜)

◇午後六時 라듸오學藝會 一、幼年童話『햇님과바람』 二、童謠獨唱 1、마음 2、햇빛은쨍쨍 3、아저씨도자 4、애기별 5、애기각씨 三、幼年劇『오뚝기』—鄭寅燮作— 童孫 朴心允 朴興烈 會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 朴仁德

◇同七時四〇分 國民精神總動員強調週間講演(第四日)『銃後의守護日』 京城女高 孫貞圭

◇同八時 譯講(本野久子)

◇同八時一〇分 軍歌工夫『日本海軍』 明新合唱團 指導 玄濟明

◇同八時二五分 懸賞라듸오小說(當選作品)『銃後의握手』—延銀龍作

配役 명순 李貞任 그의어머니 卜惠淑 良子 吳翠蘭 그의어머니 玄素珠 명순의오빠 朴淵

指揮 安東苑 効果 徐

◇同九時〇五分 歌曲 一、羽調二數大葉 二、羽調頭擧 三、羽樂 四、還界樂 五、編 洋琴 文明仙 大笒 張相淑 杖鼓 金永漢 金一樹 金宇

◇同九時三〇分 皇國臣民誓詞

十七日(日曜)(神嘗祭)

第一放送

◇午前七時二〇分(東) 라듸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午後六時 (大)童謠

◇同六時二五分 (東)講演

◇同七時三〇分 (東)講演及唱歌

◇同八時〇三分 (東)長唄

◇同八時二三分 (東)歌謠曲

◇同九時四五分 (東)劇

◇同九時三〇分 皇國臣民誓詞

◇午後〇時〇五分 第十三回朝鮮神宮奉讚體育大會野球試合實況(國語)中等學校 一般決勝戰—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但뉴ー스時間中은中斷)

◇同六時 어린이音樂會 一、빠이올린獨奏 生徒用協奏曲第二番G調 자이츠作曲 第一樂章알레그로모데라ー토 第二樂章 아다지오 第三樂章 알레그로모데라ー토 李桂成 伴奏白崇一 二、피아노獨奏 1、夜曲 쇼팡作曲 2、강아지의왈쓰 쇼팡作曲 3、끈데르리ー드 멘델스존ー作曲 金湧泰

◇同六時二五分 國民精神總動員

十八日(月曜)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 料理製法『통김치』

◇午前一一時二〇分(東) 野球

◇午後六時(東) 童話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唱歌

日蘭演藝 管絃樂 講談

◇午後〇時〇五分(東) 和洋合奏 一、序曲『露營의꿈』 池之谷與治作曲 二、意想曲『黃昏의旅舍』 藤井弘也作曲 三、意想曲『빗나는軍旗』同 編纂 레코ー드音樂 미구니和洋合奏團 指揮 岡村鄕吉

◇同一時十五分 家庭時間『無益한費用을주립시다』 京師 張和順

◇同六時 〃傳記이야기 二宮尊德 李俊興

◇同六時二十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十分 週間情報

◇同七時四十分 國民精神總動員強調週間講演(第六日)『勤勞報國日』 國民協會理事長 金明濬

◇同八時 譯講

◇同八時十分 軍歌工夫 爆彈三勇士 京明合唱團 指揮 朴景嬉

◇同八時二十五分 軍事美談 〃奇勇〃 申鼎言

◇同九時 一、小春香歌 二、遊山歌 三、제비가 申海中月 洪 月

◇同七時二五分 強調週間講演(第五日)『神社參拜殉國勇士讚頌日』 總督府社會教育課長 金大羽

◇同六時五〇分 譯講『神社參拜精神』(覓克彦)

◇同七時二五分 短簫獨奏 一、 … 李炳祐 二、『淸聲자진한닙』 鼓手 韓成俊

◇同七時四五分 唱劇調 一、 … 二、唱劇調 春香歌中科擧보는데 玄石年

◇同八時五分 新書『秋聲賦』外二篇 劉渠玉

◇同八時二〇分 舞臺劇—府民館으로부터中繼—靑春回想曲(原名알트·하이델베르히) 全五幕中 第二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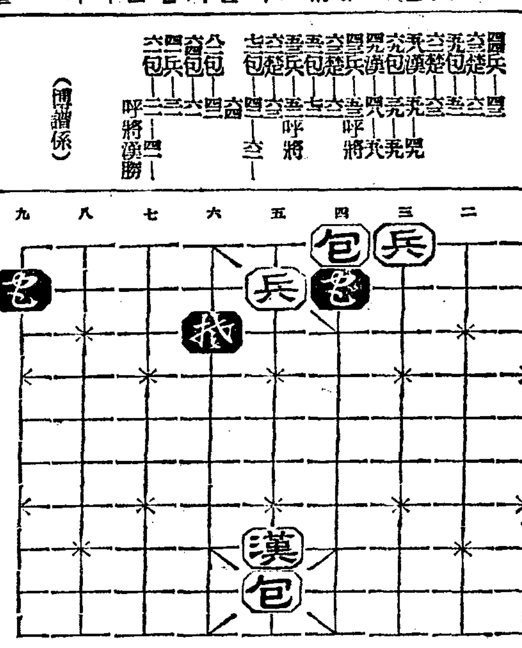
配役 昇ー데르 太乙民 妻 金映玉 케티 南宮仙 로베르트 韓銀珍 게라ー칸 徐成大 크르ー엥겔브레히트 鄭龍瑞 데트레프·폰·아스테르 베르그 宋在쥴 카ー르비르르 李軒 륫트 徐月影 세ー레르만 金滿 켈외ー델 李元根 윤트네르 孟晩植 칼하인릿히 沈影 梁士 申賢均

劇團 中央舞臺 譯及演出 延鶴年 裝置 金一影 音樂 崔虎永 効果 林草夢

◇同九時三〇分 皇國臣民誓詞

◇博譜大集 12 【昨題解答】

(博譜係)



캐롤·롬바ー드의 處世訓十條

—말만은[illegible]林의女君子—

(1) 行動을公正히할것。

아모리생각해보아도 男子편이 亦是 정잔흔것갓습니다。女子는 무슨일에든지 중도에가다가 마음이 변하는것을 맛지 自己네들의 特權과가티 알지마는 만약 男子들이 그런行動을한다면 당장에 背信者라고실형할것입니다。그럼으로 나는무엇이든지한번하다고하면 반드시 끗장을 보고맙니다。

(2) 自慢하지말것

男子들은 대체로 自慢하는사람이 만습니다。그러타고해서 女子가 그것을 본바들必要는 업슬줄로압니다。가령내가리엡부사람도잇든가하는 따위의말을이박게내는 女子가잇다면어느男子가 女子를 조타고하겟습니까?

(3) 웃사람의 命令을 잘드를것

이것은 家庭婦人 보담도 職業女性이 더 必要합니다。自己가 就職해가지고 잇는 곳의 氣風을 잘 理解해서 웃사람의 命令에 잘 服從하지아니하면 到底히 成功할수는 업는것입니다。

(4) 批評에 感謝할일。

남의 批評을 그대로 듯느냐 안 듯느냐 하는것은 勿論 判斷을 要하는 일이지마는 何如間 한번은 드러둘必要가 잇는것으로 생각합니다。自己만에 맛지안는 批評이라고해서 듯지도 안는것은 대단히 낫분일입니다。

(5) 戀愛는 私事。

혹시 戀愛를 하게되드래도 그것은 두 사람사이에만 가마니 할 秘密이지 決코 여러사람에게 자랑삼아 떠들것은 되지 못 합니다。

勿論 男子들은 좀 일흠잇는 女子와 키쓰쯤이라도 하게되면 친구들을 만나도 자랑을 하지마는 그러타고 女子야 그런짓을 할 必要가 잇나요?

(6) 일을 사랑하고 精進할것。

女子로 태여난 以上에 家事에라도 熱心으로 하지아니하면 안 됩니다。하물며 職業을 가진 以上에는 그 職業에 對해서 忠實하지 아니하면 안 되겟습니다。懶怠한 사람들이란 흔히 남의 끄십가튼것이나 만드러내는것입니다。

(7) 自己의돈은 自己가支拂할것

『체크』를 支拂할때만 남편이 조타고 할수는잇지요。大體무엇이든지 男子가 支拂하는것이라고 생각하는때문에 여러가지말썽이 생기는것입니다。벌서 職業을가지고 잇는 以上에 金錢의收支에 男子나 女子나 平等이라고생각하면그만입니다。

(8) 最大의美德은?

유ー모어의 센스라고 생각합니다。우수운일에 웃는다는것은 한개의 才能입니다。그리고 유ー모어라는것은 事物에 適應해가는 센스이에 다름업습니다。

(9) 適應性을 伸張할것。

職場에서 일을하는것과 가튼 努力을 家庭生活에도 힘쓰지 아니하면 안될줄로압니다、이 兩者가 서로합치는데 비로소 社會生活이 생긴다고할수잇습니다。

(10) 女子다워야할것。

男子들과 가티 슈ー츠를입고 또 그것을 이기는 것은 조흔일입니다。그러타고해서압가슴을 풀러제치거나 코스등이 개기름이 끼이도록두는것은 못씀니다 赤屋香水는 가르는것을쓰고 『루ー즈』의 빗갈을 조흔것을 골르고 外出에서 도라오면 洋服을빨고하는 이런적은일에 늘留意를하는것이 女子를 女子답게하는것입니다。

(사진은 캐롤·롬바ー드)

新秋의魔花芙蓉

바름.色.香氣.三拍子가조흔科學的優秀品

レート 粉白粉

레 ー 도

魅力의香氣色! 肌色、濃肌色、오ー크、白色

김치국물을맛잇게합니다

『작년김치국물에 아지노모를첫맛이섯더니 참 맛이 잇습니다』 이말은 부인들이모여안즈면하시는 말슴입니다……!

금년에도…… 모든김치국물에 아지노모도를처서맛잇게하아부으십쇼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宮內省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봉사하는바입니다』운운.

乞人을 團束 水原署에서

【水原】수원은 남부지방 통로에 끼여잇는 관계상 오고 가는 걸인의 적거장이 되다싶히 되여 항상 만흔 걸인이 서거여 배회하야 주민의곤난이를 소하고 종종 절도사건이 만히 발생하야 경찰당국에서도 매우 곤난으로 지내더니 지난수일동날 저녁에는 경찰서에서 걸인 취체를 시작하야 삼십여명을검거하여다가 병자급 불구자는각각 고향으로 도라가게 설유하야 방면하고 기여시면은 방금 취조중인데 그중에는 상히 범죄한자도 만흘듯하다한다

…要激增 …產에 突進

江原道에서 十個年計畫으로 年產一千萬貫이 目標

【春川】 약지강원도는 해륙병하야 필요한자원을보이고잇는데그중에도 면적의 약팔할을 점령하는 광대한림야의 국부하원료를 중심으로한 목탄(木炭)은 년년증산을보게되여 그질(質)로는 량(量)으로나 전조선에서 일위를 점령하고 단연드각을나타내이고잇스며현재춘천(春川)강릉(江陵)김화(金化)철원(鐵原)이천(伊川)통천(通川)양양(襄陽)등각군에는 목탄조합(木炭組合)을 설치하야 목탄의 품질향상과 증산계획을 도모하며 도외반출(道外搬出)탄은 검사를 엄격히하야 그질에 상당히 유의를하는바 도외시장에서도 신용이잇서 금번지나사변으로 해외지출을 예상하고 더욱증산을 계획하야 획기적 발전을 불러이라하며 현재 년산액오백만관을 일천만관목표로 십개년계획을 수립하엿다고 한다

不合理한面과里의 廢合整理를熱望

八萬伊川郡民의輿論

【伊川】 행정구역문제는 정치상으로나 관계주민들의 리해관계로보아 적지안흔 관심을 갓게되고잇는바 현재 이천군내의 행정구역을 보다면 십일개면으로 동면(東面)과가튼것은 불과사개리 칠백여호로 읍내호수보다도 적은면으로 면민의 부담들이 과중하고 판교면 풍림리 (板橋面楓林里)와가튼곳은 판교면소까지는 삼리나되나 방장면소까지는 불과 일리에 지나지 못하므로 주민과 면사무소의 거리가 너무도 떠러저잇고 아동들의 통학상으로 사사불편에 잇서 면사무소와의 관계가만흔데 실로 불편하기 짝이업다 이천군내에 이러한곳이 한두곳이 아님으로 오래전부터 행정구역의 개정설이 대두하고잇섯스나 이러타할 구체안이 업섯다 그러나 요로당국으로서는 일반행정상으로나 군민의 리해관계로보와 하로밧비 행정구역변경을 바라고잇는 동면(東面)과 안협면(安峽面)의 합병을 실시할것과 학봉면은 십사개리의 망범한관계로 면민의 불편도도한 이에따름으로 학봉면장항리(鶴鳳面獐項里)는 서면(西面)으로 학봉면성북、회산(城北、回山)두동리는 산내면(山內面)으로 산내면 추동(楸洞)룡포(龍浦)개련(開蓮)의 삼동리는 판교면(板橋面)으로 판교면풍림리는 방장면으로 룡포면 무릉리(武陵里)는 이천면으로 모두행정구역을 변경한다면 이천군내의 팔만군민은 실로행복이될것이고 행정구역이 리상적이 될것이라고 일반군민의 물의가 놉다고한다

戰勝奉告祭執行

十五日、開城神社에서

【開城】 석가장(石家莊)함락을계기로하야 북지나에서 활약하는 황군의 무운장구를 축하는의미에서개성군(開城郡)과 군사후원련맹(軍事後援聯盟)에서는 지난십오일 오전십시부터〃개성신사〃에진좌하야 전승봉고제(戰勝奉告祭)를 엄숙히 거행하얏다한다

藥草種類는만흐나 栽培方法이幼稚

斯界에도指導者輩出이緊急

開城藥草研究所主任 談

【開城】 수천종의 약초(藥草)를 재배하야 마치 식물원을 연상케하는 개성부외 령남면 (嶺南面) 목청전(穆淸殿) 리지에주재 한동양제일의 약초원인 경기도립약용식물연구소 (京畿道立藥用植物研究所)는 목하수확기를압두고 조제(調製)급 시험작업에 분망중인데 금년수확은 어떠한가하고 기자는 지난십오일 동소호차주임(戶次主任)을 방문하니 씨는다음과가티 말한다。

主『원체 약용식물이란 사람의 심신(心身)이 다른듯 그재배법이 각각달라서 대단히어드는것인데 금년은 발육기에고만 가물독을입어 전멸상태에 빠지지나 안흘가 퍽우려햇섯는데 그후 다행히 천후순조로 각종약초가 전부순조롭게성적을 보인것이 유쾌한일입니다』

記『그럼 약재갑도 폭등되고하얏스니 상당히 돈을모으시겟군요?』『하하! 그런데 전번 약초재배 시찰차로 남조선지방을 순회하고 오섯다지요 그곳재배상황은 어떠합디까?』

主『남조선방면도 방면곡곡이각종약초가 상당히 재배되여한성과를 보게되리라고 상상햇섯는데 아무래도 그들의재배법이 종래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잇슬뿐 하등개량연구한흔적을 볼수업는것이 유감입니다 말하자면시비(施肥)에 잇서서나 소독(消毒)에잇서나 혹은 기타 일반배양방법에 잇서서도 도무지식(食)시술(施術)이 부족한것이 복장이업서보입니다 요컨대 금후사업장려에잇서서는 무엇보다도 금한문제는 재배지식보급과 한가지로 지도자배출을 것이다

戰勝祝賀式

議政府神社에서

【楊州】 북지사변이돌변한지 불과삼개월여에 파죽지세로 하락에도함락으로 보정(保定)을함락시킨지 수일에 석가장(石家莊)을점령하야 황군의이르는곳마다 일장기의 찬연한광채를내이지안는곳이업서 총후에잇는 우리로서는 황군에게 감사와전승을 축하키위하야 지난십오일아침열한시부터 의정부신명신사(議政府神明神社)에서 관민천여명참렬하에 전승봉고제(戰勝奉告祭)를 성대히거행하고 동신사경내에서 축하연이잇슨다음 만세삼창으로 해산하얏다

(사진은 축하식광경)

國民精神作興

華川公普校에서

【華川】 금월십삼일은 무신조서환발기념일임으로 국민정신작흥키위하야 화천군에서는 동일오전필시삼십분 화천공립보통학교교정에 관민칠백여명이 집합하야 조서봉독식을 거행하고 군수립용준씨의 강연후 황국신민의서사제송으로 성대히거행하얏다한다

禮成江上에떠도는 正體모를處女屍

檢證한結果、死後遺棄인듯 開城署에서犯人嚴探

【開城】 개성부외서면전포리(西面錢浦里)와 황해도 연백군 해월면(延白郡海月面)과의 경계가 되여잇는 례성강(禮成江)강변에는 나이 십칠세가량되여보이는 꼿가튼 처녀의 시체가 송판(松板)궤짝속에 담기어 떠돌고잇슴을 지난십삼일 그곳을지나가든 그 동리사는 한인순(韓仁淳)(七)이가 발견하엿다 그이튼날 십사일 이급보를접한 개성서에서는 도립의원 임석(立石)원장을 대동하고 현장에 달려가 림검한결과 죽은지는 약이일가량된 시체로 타살의 혐의는업고 자살로도볼수업스며 필경죽은것을내다버린것으로 보이나 누군지 성숙한처녀의 시체를 이가티 물에띄워버린데는 필시무슨곡절이 잇슬것인바 방금 개성경찰에서는죽은처녀의 신원을 조사하는일방 유기범을 엄수사중이라한다

家畜市場과 屠獸場도移轉

往十里驛附近으로

경성부에서는 동부경성의발전에 따라 부영가축시장(家畜市場)과 도수장(屠獸場)을 다른곳으로 옮겨야될필요를 늣기고 금년도예산으로 그용지(用地)매수비로 십사만원을 세워서 왕십리역(往十里)부근에 후보지를정하엿는데 드듸여 명년도에는이전을하는 동시에 이십오만원을 드려서 시설을일층 개선하기로 되엿다 그러고 현재의 가축시장자리는 땅갑시오를때를 기다려서 매각처분을 하기로되엿다 한다

苦草飢饉念慮

支那輸入杜絕로

【仁川】〃김장〃이라면 겨울동안에 지내는 우리네의 음식물에 가장 중요한것의 하나가되고잇다함은 자타가 공인하는바와갓거니와 〃김장〃이라면 즉 〃소곰〃과 〃고초〃를 생각아니할수업는것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이제 이에대한것을 조사하건대 호초(胡椒)은 다소염려를면할듯하다하나 『고초』가 가장 큰 문제가되여잇다 평상시가트면 지나로부터 수입되는 『고초』가월평균사오천포(包)에달하든것이사변으로인하야 전연두절되엿는바 게로 아모리하야도〃고초〃난은 면할길이업스리라고 전하고잇다 한다

地方人事

▲金平默氏(江華産組溫水支所長) 新任人事次本社江華支局來訪

住民大會열고 最後抗爭을決議

쪼겨나는仁川松峴町民

【仁川】 축일 박두하야 오는엄동을 압두고 오십삼호에 대하야 지수측으로부터 철거령을나리엿다함은 기보한바와 갓거니와 주민들사이에서는 항상지수의 너무나 무도덕한 태도에분개하고 잇는바 지난십사일마침내 주민대회를 개최코최후 결의를 하엿다는데 이는 지주에게 재차로 주민에게 매도하야 주기를 교섭하야 만일이것에불응하는때이면 최후까지 항쟁하기로 결의하얏다는데 지주의 태도도 강경함으로 아프로 전개될쌍방의 태도와 결의가 가장 주목된다 한다

二日分給料를 獻納한職工

【永登浦】 시국인식의 철저는 총후의열성에 굿게반영되여 실노거국일치로서 시난극복에 당하고잇는것은 진실로 깁버할일이다 여기에 또세상사람을 감격식히고잇는 한소년 직공의미행이잇스니 그는시내 영등포정(永登浦町)동양방적 경성공장(東洋紡績京城工場)직공 김성대(金聖大)(二○)로 이틀동안피땀흘녀서번 금료삼십삼전을 국방헌금으로하야 달나고 영등포경찰서(永登浦警察署)에 기탁하엿다는 것이다

他人印章惡用한 詐欺犯檢局送致

【伊川】 만여평의 남의토지를감쪽가티 따라먹고 도망하엿다가 삼년만에 체포되엿다는 사실은 기보한바어니와 그후 이천경찰서에서 주밀한 취조를 마치고 지난십일일 일건서류와가티 철원검사국으로 송치되엿다는데 모처로 탐문한바에의하면 이천면천안리(伊川面泉安里) 송태하(宋泰河)는 일즉 삼백오십원에 이천면탑리 박모련(朴模連)에게 팔리여 그와가티 대담한범행을한 것이라는데 박모련이는 사실을 절대로 부인한다는바 금후사건의 귀취는 자못주목시되고잇다 한다

長篇小說 花冠 (75)

李泰俊 作 金奎澤 畫

알도록불행한것(四)

『왜요?』

채봉은 궁금한듯이 일현의 딸을 끼며 쳐다본다。

『너이집 어듸냐?』

『다방골』

『나허구 한차루 갈가? 나도 그쪽인데!』

『……』

대답은 업스나 채봉은 선선히 고개를 끄덕여주는것이다。현관에 가까이 나왓슬때다。

『그럼 먼저 타시구 큰길에 나가 잠간만 기다려 주세요 사무실에 둘러 곳 나갈게』

이번에는 일현이가 고개를 끄덕이엿다。

일현은 먼저 자동차에 올러 골목밧글 나왓다。곳 차를 세워노코 생각해본다。

『동옥이가 순결한듯……그러나 난 이미 동정을 일흔지 오래지 안흔가? 남자에게 동정이 업는건 아직 조선선분제시 안되지 안는가? 이미 그런 순수성이 업는 사나이일진댄 차라리 난잡하지만 안흔 범위내에선 여러 여자를 경험하는것이 최후의 한여자를 위해선 준비지식이 되는게 아닐가?』

일현은 담배를 내여부친다。찬 밤ㅅ바람이 가로수를 쏴— 스치고 지나간다。낙엽이 자동차의 유리창을 때린다。

『오래 기대려야 합니까?』

운전수가 뭇는다。이김에 그냥 가버리고시픈 생각도 업지는 안타。

『이제 곳 나올게요』

담배가 다 타서 내여버리어도 채봉은 나오지 안는다。아파트방에서 혼자 미소를 띄고잇슬 동옥의 사진이 번뜻 눈아페떠오른다。일현은 그만 운전수에게

『그럼 갑시다』

해버린다。자동차는 곳 움직인다。휘ㅡ 비인 큰길에 거침것업는 자동차는 순식간에 파고다공원 아페 이른다。

『여보?』

『네?』

『스톱! 스톱……』

하고 일현은 당황하게 소리를 지른다。차는 삐이ㅡ소리를 끄을며 무리스럽게 선다。

『왜그리세요?』

『기다린대노쿠 약만해두 안됏수 도루 잘 돌류 그리 갑시다』

운전수는 잠작고 차를 돌린다。

『아파트로! 다리고 갈건 업서두 저이집 드러가는데까지는 약속한대루 태다 줘야 올치』

다시 명월관 아프로 오는 일현의 생각이엿다。

채봉은 차가 서자 곳 나타낫다。

『기다리섯죠?』

『왜 그러케 오래?』

『호……』

하고 웃으며 차안으로 드러오는 채봉의 얼굴은 분향기가새로웟다。화장을 다시 하노라고 느즌것을 깨닷는 일현은속으로

『그냥 가버리지 안흘 잘햇다』

생각된다。그러나 운전수는 조곰도 이로울것이 업다는듯、차를 때려 몰듯이 감재기 속력을 내이는 바람에 아직 기대지도 안햇던 채봉이는

『아유!』

하면서 일현에게 쏠린다。일현은 자기의 무릅을 집흔 채봉의 손을 꼭 쥐여준다。

차는 어느듯 종로로 와섯다。일현은 채봉의 눈치를 본다。다방골로 드러가려면 차를 남대문통으로 나가자고 해야할때다。그러나 채봉은 잠잣고 잇다가 차가 네거리를 그냥 지나 광화문쪽으로 달리려니까야

『이차가 어디로 가?』

하고 놀랜다。

『어디서 내릴터구요?』

일현이보다 운전수가 먼저 속력을 주리며 퉁명스럽게 뭇는다。

『난 다옥정인데 저 광교다리서 나려야』

그러나 차는 벌서 한참이나 지내첫다。

『그럼 어떠허나?』

일현은 차가 지내친것보다 더 복잡한 속이 잇다。

『그럼 모교다리로 드러서줘요 거기서 내려도 멀잔 안호니까……』

차는 이내 모교를 건느자 정거한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채봉은 태연히 나리나 일현은 아모 대답도 못한다。그러는새 채봉은 나려서고 문은 운전수의 손으로 탕 소리가 나게 닷긴다。자동차는 온두커니 섯다。자동차는 움직이려한다。일현은 어떠케고 마음을 정해야할 순간이다。

青春回想曲 (獨名일트·하이메르히)

於府民館

十六·十七·十八日三日間 十七日만은晝夜二回 夕七時晝一時開演

中央舞臺革新公演

出演 沈影 徐月影 朴齊行 孟晩植 李元根 太乙民 宋在魯 韓銀珍 金映玉 金愛順 (其他延人員一五〇名)

演出 延鶴年 裝置 金一影

流行歌 雁別哀譜 安王鏡 아가씨여술을 韓道植 49486 빅타—

效力으로팔리는 三仙膏 補藥에는 鹿茸 종기에는 三仙膏 百發百中 其効如神 共生藥業

朝報案内 自動車 收縮規則新版賣出 定價(要二錢切手) 新生徒大募集 朝鮮總督認可 京城自動車學校 京城府太平通二丁目

輕油、石油發動機 同名(クボタ)類似品이잇슴으니 特히注意하시압 クボタ 티-제로 구루아-機關 一馬力半부터 二十馬力까지 大阪 株式會社 久保田鐵工所 製 合名會社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南大門通五丁目 (カタログ送呈)

時計 大廉賣 純金과가튼十八金代用側標中 名合會社 三一洋行 新義州驛前 振替京城貳四壹貳參

女流文人十五氏執筆 現代女流文學選集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우수한치림약 리베ー루 염려말고 꼭한번 시용하십시오 大阪市 竹村製劑所 五日分貳円 全國藥店에잇슴

就職近道 奉天 大滿測量學院 第一回就職率九十% 第二回生徒募集 附設營業部

第一劇場 東洋劇場 優美館 海の魂 宮本武藏 北支事變ニュース

松竹キネマ 明治座

10月9日ヨリの番組時間表

京日·讀賣ニュース	11·30	3·00	7·00
次郎吉唄ざんげ	11·46	3·16	7·16
號外ニュース	1·14	4·44	8·44
ホノルルの航空隊	1·30	5·00	9·00

經濟說 米國景氣逆轉 ②

「인풀레」進行停頓

六月三十日現在 七年度國庫現計書
▲歲入＝五十二億九千四百萬弗
▲歲出＝八十一億五百萬弗
▲歲入不足＝廿八億一千百萬弗
로 發表하얏다. 이것을 前年度에 比較하면 歲入, 歲出이 모두 十一億弗 以上의 增加를 示하얏는데 緊急支出이 十九億弗減少하얏슴으로 赤字는 前年의 四十七億弗에 比하야 約二十億弗의 減少를 示하얏다.

×

問題는 政府의緊縮方針인데 「루즈벨트」가 最初大統領에就任하얏슬때는 財界未曾有의恐慌時이엇다. 以來莫大한 緊急支出에依하야 景氣의 振興을 策한것으로 이赤字主義가 奏效하야 米國의景氣는 明白히 恢復하얏섯다. 이大統領의 政策은 最近明白히 緊縮方針으로 轉하얏는데 本年四月議會에 보낸 敎書에依하면 財政緊縮의必要를 强調하고 또 一九三八年度에는 增稅를 斷行할意量을 述하야 健全財政主義를 極히 明白히 示하엿다. 昨年十二月 敎書에依하면 來年六月로써 終하는 一九三八年 會計年度에는 約十五億四千萬弗의 黑字, 失業救濟費를 除하고가 될수잇고 救濟費十五億弗을 支出하야도 豫算에均衡을 得할수잇섯는것이나 政府豫算에 反하야 自然增收가 增加되지안코 本會計年度에는 本年一月豫想에比하야 赤字는 約三億弗이 增加되어 二十五億五千萬弗이오 이대로 推移하면 一九三八年度末에는 黑字는커녕 四億一千八百萬弗의 赤字로 될것이 明白히된 結果 政府支出에對하야 削減을 加하는同時에 議會에 對하야서도 新規支出要求拒絶을表明하얏는바 一九三八年度의修正豫算은如左하다.

一九三七―三八年度修正豫算

	修正分	一月發表分
歲入	六、九〇六	七、二九四
歲出	七、三二四	五、七五七
不足	四一八	一、五三七

(單位百萬弗)

大藏長官「모겐소」는 九月二十八日에 將來의 財政方針에 對하야 如左히 言明하얏다。

最近의 經濟界의 沈滯에鑑하야 一部의 「뉴―딜」急進論者는 다시 緊急支出을 增加하라고 要請하고잇스나 大藏省은 이것을 排斥하고 經費節約方針을 實行에 移할準備가잇다 또 「모겐소」長官 「에클스」聯邦準備制度理事會會長은 最近 「루즈벨트」大統領에 對하야 假令景氣에 依한 國債를 增히 하드래도 次期會計年度에는 均衡豫算을 實現할것이라고 進言하얏다고 傳한다。

決코나쁜 健全財政이라는것은 그러케되는것이 아니오 차라리 將來에對하야 조흔일이나 도리키어생각하면 「루즈벨트」大統領의 政策的轉換에는 恒常 「인풀레」가 떠러다니엇다。

그것이 大年度부터 經費節約이니 增稅이니 해틀게되니까 當然히 어떤程度의 景氣를 抑制한모양이다. 大統領의 政策이 極度의 「인풀레」로 轉하얏다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인풀레」의 停頓인것만은 事實이다. 市價는, 아를란타兩準備銀行, 經濟準備銀行, 필라델피아準備銀行利下에잇서서 미네아폴리스 聯邦銀行의 利下가 그리 好影響을 齎來치안흔것은 以上과가튼 情勢가 深刻히 影響된 結果가아닌가?

工業生産減少傾向

最近의 工業生産數字는 아직 全般的으로 發表되지안혓슴으로 眞相은 不明이나 九月에入한後 幾分減少한것가티 想像된다

八月中의 鋼塊生産額은 平均日産二千萬一千百五十噸으로 一九二九年六月의 十九萬九千七百四十一噸을 凌駕하얏다. 그러나 九月의 鋼製作業率은 最近의 八十四%에 比하야 七四、四%로 떠러젓다고 傳한다.

×

右外에 歐洲의政情危機, 日支戰爭深刻化는 財界의悲觀材料로서 充分하며 棉花, 小麥의豊作은 市勢가 暴落되고 財界의人氣를 不振케하고잇다.

이것을 轉期로하야 米國의 上昇景氣는 根本的으로 挫折되느냐 안되느냐는 더 考究할 餘地가 잇는일이나 今後의 景氣가 자미업는것만은 明白히 斷定되는일이다. (了)

經濟力膨脹反映 鮮銀券顯著增發

北支의流通增大를特히注目 一億九千萬圓台出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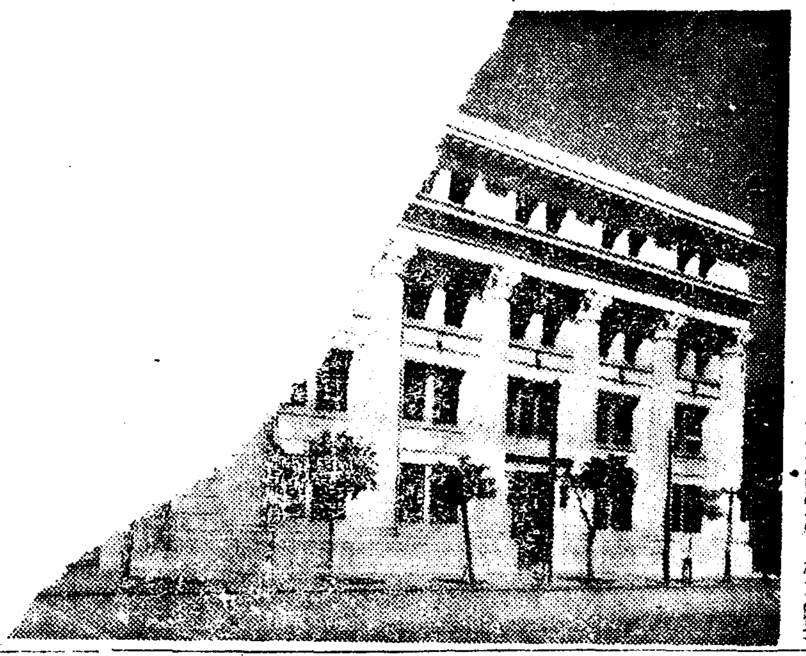
十五日에 繰越된 帳面末에依하면 鮮銀券의 發行高는 一億八千萬圓臺를 突破하야 一億九千百萬圓臺에 乘하얏는데 前年同日의 一億四千七百六十二萬九千圓에比하면 實로 約三千五百萬圓의膨脹으로 朝鮮內의 經濟力膨脹을 反映하는同時에 北支의 鮮銀流通增大를 說하는것으로 特히北支의 鮮銀券膨脹은 注目된다 卽今日부터 三個月前의 七月十五日 繰越의 鮮銀券消長을보면

七月十五日 一四〇、二二二千圓
八月十五日 一五一、八八一
九月十五日 一六八、六七〇

으로 一個月마다 約一千萬圓이 膨脹되엿고 九月末에는 一億八千九百萬圓으로 膨脹되엿고 十月에는 더욱增勢를 늣히엇는데 이대로 膨脹하면 年末에는 二億七、八千萬圓은 確實하리라고 보는모양이다

臺灣의米專賣 朝鮮엔無影響

米穀政策에基因한것이아니오 作物轉換이主目的



臺灣의 米專賣實施는 過般來鮮한 荷見米穀局長談에 依하드래도 農林省에對하야 何等商議를 求한바업고 朝鮮總督府에도 通知가업스나 世上에서 傳하는바로는 明年産米부터 實施케될것이 確定的이라한다 但一期米부터 實施할지 二期米부터일지判然치안호나 豫算編成의 關係等으로보아 二期米부터일것가튼데

我國最初의 米專賣가 臺灣에依하야 實施될것은 無疑이오 그影響은 世上에서 여러가지 意見이잇서 總督府에서도 內內關心을 가지고잇는바 朝鮮에서는 此種急激한 變革은 絶對로 行할수업고 또總督府로서도 行할 意向이업다 專賣는 臺灣限의特殊形態에 不過하고 我國의 米穀政策乃至食糧政策에 根本的打擊을 與하는일은업슬것인데 一部에서는 從來外地側이 結束하야 主張한 米穀政策의 內外地一貫主義, 無差別主義는 이에依하야 臺灣의 一角으로부터 崩壞된것이오 內地側에 與하는精神的影響을 延하여는 將來의朝鮮米對策에도 不利한 影響을及할 危險이잇다고 念慮하는便도잇스나 一般으로는臺灣의 專賣가 米穀政策에 出發한것이 아니오 燃料國策에 順應하야 無水酒精原料增産을 爲하야 作物轉換을 目的으로한것인以上 不利한 影響은 업스리라고 보고잇다한다

國産品使用 五百萬圓

昭和十一年法律第四十一號로써 國産品愛用을 獎勵키爲하야 鐵鋼等 七十二種目을 指定하고 會計法의 特例를設하야 右指定種目의 國産品購入에 對하야서는 優先權을 與하는規定이엇는데 總督府에서는 時局關係로 去益國産品愛用을 强調키爲하야 右規程을 有効適切히運用코저 財務局에서 昭和十一年中全朝鮮官公署에서 右特例에依하야 國産品을 使用한 額을調査한바 總額五百萬圓에 達하얏다한다

稅關檢查協議會席上 財務局長의訓示要旨

今回 稅關檢査事務協議會를開催함에 當하야 所懷의一端을述하야 諸君의 參考에 供코저한다.

朝鮮의貿易은 最近 異常의進展을 遂하고 昭和十一年에는 輸移出入總額 十三億五千五百餘萬圓을 算하야 前年에比하면 一割二分의 增加를 示하고 其內外國貿易은 輸出入總額 一億八千九百餘萬圓에 達하야 前年에比하면 實로 一割五分의 增加로서 施政以來 空前의巨額에達하얏다

이趨進은 更히 本年九月까지의 實績에 잇서서도 同樣 이것을 볼수가잇서서 此期間의 輸移出入總額은 十一億五百餘萬圓에 達하고 前年同期에 比하야 一割三分의 增加이며 就中 外國貿易은 輸出入總額 一億八千五百餘萬圓을 算하야 前年同期에比하면 三割五分의激增이다

如斯히 貿易의大勢는 逐年顯著한 膨脹을招來하야 그內容이 되는 物品의種類도 漸次高級으로되고 複雜케되는 傾向이어서 稅關檢查事務는 去益繁忙케되것스니 諸君은 特히不斷의研究와 事務能率의 增揚에 一段努力키를 切望한다 先般政府는 增稅의必要에 追迫되어 諸般稅制의 改正을보것인데 朝鮮에잇서서도 새로이 揮發油稅를 新設하고 輸移入品에對하야 稅關에서 徵收키로 되엿스며 또 朝鮮臨時租稅增徵令에잇서서 砂糖類及菓子類의 移出에對하야 出港稅를 徵收키로되엇다

이외에 內鮮關稅統一以來 多年의 懸案이던 移入稅의 輕減及廢止에 關한 制令이 公布되고 本年度부터 各品에 對하야 遞減된 稅率을 適用키로되어 昭和十六年度全廢가될때까지 이過度期的稅率을 適用키로된것이다

다음으로 關稅定率法의 改正에依하야 礦油의 免稅制度를 廢止할려인데 從來 主로서 免稅後의 取締를 考慮하면 足하얏슴에 反하야 今後는 現實徵稅를 行키로되엇스니 檢査上一層 注意를 要함은 勿論이다 이것은 礦油의 分類方法을 比重制로 改正한 點과 共히 새로이 留意를 要한다 先般特別議會에서는 大正九年 法律第五十三號中 改正을보리인데 右는 當時 發表한바에 依하야 이미 알고 잇겟지만 日滿不可分의 原則에 基하야 鮮滿間經濟交通의 圓滑을 期하는同時에 陸接國境住民의 利便을 圖한 趣旨인同時에 我國의 燃料와 鐵鋼에關한 國策上必要한 原料의 輸入稅免除를 規定한것으로 此等諸法令은 現下朝鮮의 實狀에 鑑하야 가장適切 또緊要한것이니 그運用은 本來의 趣旨를體하야 實施上萬全을 期키바란다 朝鮮北支事件特別稅令에依한 物品特別稅의課稅에對하야서는 物品의性質이 比較的複雜한터이니 價格鑑定에 充分히注意할일이다

今次勃發한 支那事變은 我國貿易經濟上에 重大한 影響을及하는것으로서 國民이다가티 緊張함은 勿論인데 先般行한 外國爲替管理强化에依하야 國際收支의 均衡을確保하는데 必要한 措置를 講究한 反面 輸出入品臨時措置法을 施行하야 國民經濟의運行을 確保하는데 必要한物資의輸出入에 制限又는 禁止를 함에 至한것이다 如斯한 時局에臨하야 稅關事務의第一線에서서 時局에關하는 諸君의 責任은 重大한것이다

다음으로 從價稅品에對한 鑑定이 關稅上 重大한關係가잇슴은 말할것도 업는터로 諸君은 愼重히 留意하것것만 從來往往히 新品, 無稅品等의價格 鑑定에對하야 檢査官吏는 等閑에附하는 傾向이 업다고도할수업스니 이點에 對하야 從來會議等에서 注意한바이나 現下時局重大性에 鑑하야 國際收支의 均衡을圖하는데 資料로서 그正確을期하는데 一段努力하라 (下略)

鱗狀黑鉛 自給計畫

輸入管理施行에 依하야 輸入鱗狀黑鉛은 杜絶狀勢임으로 此際朝鮮의 群小企業을 强化하야 朝鮮産으로써 國內自給을 圖코저 目下總督府에서는 高橋技師가 平北産地를 調査中인데 朝鮮內黑鉛의 缺點은

一、世界的埋藏量이 잇슴에 不拘코 小資本業者의 對立

一、粗鑛대로의 生産으로 銘柄取引이不可能

等이오 目下東邦鑛業에서 一部製鍊에 着手하고잇스나 國內自給을 爲하야서는 此種製鍊施設의 一大擴充이 必要하다한다

三品受渡代用 朝鮮棉을申請

大阪三品取引所에서는 米棉의 輸入制限에依하야 三月限부터의 先物取引을 中止코잇는데 取引所로서는 先物의 取引復活과同時에 受渡棉의 代用으로서 스트릭도밋드링(標準物보다一級下)을 認하는同時에 로―밋드링에 大略相當한 朝鮮棉의 受渡棉代用도 商工省에 認可申請中인데 右에對하야 東洋棉花京城支店當局은 如左히 말한다

朝鮮의棉은 從來 칼이 不足한것과 纖維의長短이 不一致한것等이 缺點이엇스나 步留는 이미定評이잇는것으로 國內棉花의 取引所受渡品에代用된다는것은 當業者의多年의希望이다

朝鮮의 産棉은 二億四千萬斤 實棉으로 內地에移出되는 繰綿은 二千萬斤에 達한다

鐵鋼材節約 五、六萬噸일듯

鐵鋼消費節約을 目的으로하는 鐵鋼工作物築造許可規則은 旣報와가티 朝鮮서도 實施키로 商工課에서 立案을 急히하고잇는데 朝鮮內에서 使用되는 建築과工作物用鐵材는 約十萬噸으로 同規則의 實施에 依하야 五萬噸乃至六萬噸이 節約되리라한다

京電新株二回拂込

京城電氣會社에서는 局內線과 外遊線과의 切離工事費에 約百萬圓을 要함과 其他興業費의膨脹에依하야 自己資金充實의 立場으로 來春初에 第二回拂込을 徵收키로 內定하얏다

度量衡協會 財團法人改組

計量器의 改良普及과 計量思想의 普及徹底를 目的으로서 設立된 朝鮮度量衡協會는 現在會員四百十一名에 達하고 基礎도 强固케되엇는데 更히 一段 그强化를 圖키 爲하야 財團法人組織으로 改組코저 申請中이든바 十四日付로 認可되엇다

朝運惠山線에 三營業所新設

朝鮮運送에서는 惠山線이 來月一日부터 全通함으로 惠山鎭과 酒原 大五川의三個所에 營業所를 設置하기로되엿는데 東海岸線의 開通에伴하야 同沿線에도 二三個所 營業所를 設置하리라한다

河合專務昇任?

朝鮮運送의 中野社長辭任에伴한 後任社長 人選은 村上日本通運副社長, 河合現專務의 社長昇任의 兩說이 傳하는데 最近東京情報에 依하면 日本通運乃至鐵道省方面으로서의 就任이업고 結局河合專務가 昇任하리라고

朝運新社員採用

朝鮮運送에서는 來年度 新社員採用은 增田庶務課長이 北鮮方面에서 銓衡한結果 來年度採用百名中五十名의 銓衡을終了하고 남어지五十名은 九州, 朝鮮內에서 銓衡케되엇다

洋灰生産 制限擴大

세멘트生産制限은 從來의 三割九分을 다시 擴大할 方針으로 目下殖産局에서 考究中인데 渡東中인 穗積殖産局長과 協議한後 近日中에 實施하리라한다

香月司令官이 朝鮮商議에感謝狀

朝鮮商議를 代表하야 過般賀田會頭, 福島平壤商議會頭, 立石釜山商議會頭는 北支各地에 轉戰中인 皇軍을 慰問하고 歸任하얏는데 右慰問에對하야 十六日香月司令官으로부터 如左한 感謝狀이왓다

先般은 御慰問을 御鄭重히 受하얏슬뿐아니라 多大한 寄贈品까지 御惠送을 바더 感謝하다 軍의 戰鬪도 豫期以上의 進展을 보기에 至하얏스나 前途樂觀을 不許이오 將兵一同이 邦家를 爲하야 奮鬪의 一大決心을 가지고잇스니 銃後의 御後援을 願한다

土建協會懇談會

京城土建協會에서는 十六日午後零時半부터 協會議室에서 懇談會를開催 鮮銀橫瀨理事로부터 戰時體制下의 經濟界와 資金調整法에關한 講演을 聽取하얏다

各金融機關에 監理官任置

資金調整法運用으로

資金調整法의 施行에依하야 各金融機關의 事業資金貸出에當하야는 今後各機關과 總督府의 連絡折衝이 一層緊密케될것으로 調整法의 適用을 事務的으로 圓滑케하기爲하야 總督府는 各金融機關에 專任監理官을 置키로 되엿슬모양이다 鮮銀, 殖銀에는 이미 監理官이 잇는데 東拓現理官인 財務局長이 監理官이되어잇고 米殖에 關한 監理官인으로 調整法施行과同時에 專任監理官을 置하기로 內定하고잇다 他金融機關도 各其監理官을 置하리라한다

上旬鐵道荷動

鐵道局十月上旬荷動狀況은 前年同期에比하야 活況을 呈하고잇는데 貨物은 生果, 野菜, 鑛石, 石炭, 木材, 세멘트, 建築材料等을 除하고 各品目은 모다 激增되엿는바 本旬의 成績은 二十四萬九千六百十一噸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萬八千九百九十五噸增加이다

商銀에서米資金積極貸出할方針

一千萬圓突破豫想

商銀에서는 米資準備를 終了하고 淸州, 平壤方面의 一部貸出에 入하얏는데 前年의同行實績은 七百五十萬圓을 넘엇스나 本年은 更히 激增하야 一千萬圓을突破할모양이다 同行에서는 이豫定으로 資金計畫을 樹立하고잇는데 需資增加의 境遇는 他를 犧牲하고래도 米資에 應할 方針이라한다

局鐵朝鮮米發送 (十四日發送分)

	今年	前年	比較
釜山	一四一	一五三	一二減
順天	一三	—	一三增
太田	七三	一五	五八增
京城	五五	四二	一三增
平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城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五日發送分)

	今年	前年	比較
釜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順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城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東鐵道會社 百五十萬圓調達

京東鐵道에서는 이미完成을본 水仁線의 建設資金을 調達中인데 百五十萬圓中百萬圓은 鐵道共濟會로부터 五十萬圓은 銀行으로부터 借入하기로되엇다

京城勞銀昂騰

鮮銀調査의 九月中京城勞銀指數는 一九〇五年을 一〇〇으로 하야 一二一을 示하야 前月中의 指數에 比하야 〇、五포인트七四의 昂騰, 前年同期에比하야 一三포인트四三의 昂騰이다

今日財界 (十六日)

◆米 (單位錢)	今日前止	比前日後止
仁川期米先限	二九九	二〇高
大阪期米先限	三二八	九高

	今日	比前日
京城三等米一石	三〇四〇	不變
米百키로 一等白	三一四〇	一〇低
正租(仁川)一等 一斤	八錢三厘	八錢三厘
고무神戶現	四七錢	[illegible]

◆株 (單位十錢)	今日前止	比前日後止
朝取新	三三二	一高
東新	一四六	七低
鐘新	二三九五	六低

◆商品 大阪三品 (先限單位錢)	今日前止	比前日後止
綿絲	三四二〇	四〇高
棉花	八〇〇	五高
人絹	—	—
砂糖	三二〇	一高

株式 嫌氣賣로 不勢

前場低落

大保合 閑散이던 市勢가 今朝는 休日을 압두고 嫌氣賣를 呼하야 鐘新一百三十圓四十錢, 東新百四十一圓七十錢, 大新七十九圓六十錢, 日産六十六圓七十錢에 低落이엇다 ◆後場例休

今日의市勢 (十六日)

(十月十三日) 취引所 京城府 鐘路一丁目七三 金澤銈

休日압두고 嫌氣賣不勢

英國도 對日事이곳든가 不能하다는 소식을傳하나 市勢에는 影響이업고 休日을 압두고 嫌氣賣로 今週最終을 하얏다 그러나 現在市勢의 位置가 이미 惡材料를 밧지안흘데까지 다왓고 通貨는 必要以上으로 引締되어잇다 年末에는 이대로는 안되것고 國內의 金融이 今後에 緩和될것이오 上海의 陷落도 期待되는데 支那軍의 上海撤退로 光明이 새고 나아갈것이 아닌가? 東新 鐘新以下 主力株는 相當히 買込되엇고 賣方이 退却코 나간것도 잇드니 設令 上海奪取가 오래끌린드래도 賣方이 그리 압설것이라는 强氣論이 擡頭되어잇다

鐘新株價分析

鐘新은 事變直前 七月六日에는 二百九十四圓臺이던것이 天井으로부터 底로부터 三十七圓이 戾이엇스니 下落幅의 半値戾에 相當하얏던것이다. 五月以後七月末까지의 市勢는 天井을치는後의高價大往來로 大體二百六十圓과二百八十圓臺에서 만히往來하야섯다 그러든것이 事變擴大로 經濟의 悲觀케되엇슴으로 그것을 動機로 意外의大暴落이엇다 八月二十三日에는 百九十三圓의 底値를 부르고 低價에 依然 賣埋하야 低價 이엇다 前記高目標는 第一目標가 百九十六圓이엇다 從하야 八月二十三日의 底價는 第二目標와 거의 一致하얏다 萬若事變擴大가업고 整理低價이엇더면 保合이 下放되이도 第一目標인 二百十七圓臺에서 下止되얏슬것이나 局面의 急轉回로 第二目標까지 慘落되엇던것이다 그러나 그 激落으로 玉整理가 徹底케되엇고 其後拂込을 徵收한關係로 九月三日에 再次突込하얏슬때는 百九十九圓臺가 底이엇다 그리고 其後는 市場對策과 戰捷으로 急反撥되어 九月二十日에는 二百四十七圓臺로 翻進되엇다 이것은 事變直前의 戾天井二百五十四圓에서 底價百九十三圓까지의 下落幅百一圓에 對하야 約半値戾이엇다 그것이 또 二百二十七圓까지 反落하고 目下小戾하야 二百三十圓前後로 往來하야 資本調整으로 紡績은 操短이 擴張되고 增資도 延期케될것이니 戰捷에依한 輸出轉換이 懸念되나 그러드라도 鐘新二百五十圓은 買妙味가 薄하고 九月二十日 二百四十七圓臺에서 反落한것은 當然하다 이에서 또 二十圓은 내오겟는데 材料如何로는 그것이 잇슬지모르나 大體로 底價二百二十圓가량으로보고 戰局推移나 보는수 박게 업는노릇이다

市場六感

(株)…反戾되더니 嫌氣賣하더니 거의 一定幅에서 揉合이 繼續되고 鐘新은 二百三十圓, 東新百四十一圓臺로 不勢▲休日에 또무슨 惡材料나 날가하는 모양 ▲그러나 現在의 價位는 事變을 織込한 相當한 價位이니 여기서 大幅暴落을 難期之勢▲對支政策은 徐徐하나마 豫定대로進行되는터이니 前途大局悲觀만이 반드시 得當하다할수 업고 閑散嫌氣賣로 不勢이거던 買拾하라는 말도不無▲統制經濟도 그리 悲觀할것이 업스니 高配株는 考慮할지어정 緩慢的으로 利廻로보는限 大低價買叩는 업슬것가다는 말이잇는바 果如何

(米)…今朝는 頭上天氣가 良好치못하야 阪仁共히 一段反撥을 示하엿다 昨今正租의 出廻가 稀薄하야 買氣를 助長 天候조차 買人氣를 誘助▲天候가 依然 秋後가지의 反落은 防止할것이나 大體環境은 不許할 모양▲더구나 當地도 阪地地場의 下買成에 反하야 大部分買成을하고잇다 그러한 關係로 阪仁의 開離가 二百六十丁으로 縮少▲그래서 朝鮮서는 割高를 維持하는모양

當地의單獨高

當地市勢는 一時阪地에 比하야 三百餘丁의 大懸隔으로 軟弱의形勢를 示하엿스나 昨今에至하야는 正反對의 現象으로 二百六十丁까지 縮少하엿다 勿論阪仁의 開離二百五、六十丁은 當然하다고 할수잇스나 朝鮮各地에 比하야는 割高를 維持하고잇다 要하면 當地는 早稻의 出廻가 거의 一巡되고 昨今은 農家의 態度가 依然强化하야 正租一斤八錢以下에는 잘賣應치안흘뿐아니라 地場側은 暴日買賣成을 하고잇스므로 當地의 單獨高를 示함에至하엿다 그러나 農家가 무리 賣惜한다할지라도 時期가 時期인만큼 畢竟出廻의 一時壓迫을 免치못할것으로 豫期하는 關係上으로 買方으로서도 持久戰을 하지못하고 稍히 高價인때는 利喰을 急히하는 觀이업지아니하며 從하야 市勢도 一氣로 昂騰하지는 못하는모양이다

買氣더욱熾烈 天候不良으로

昨今의 米界事情은 當地의 早稻朝鮮坊主의 出廻가 一巡되고 依然市勢가 引締되을뿐더러 買人氣가 旺盛하는곳에 今朝의 天候가 不良하야 昨夜에豪雨를 齎來하고 大阪, 下關이모다 雨天으로 東京大阪兩地의 急反高를 接하고 當地는더욱 買氣熾烈하야 二十八圓六十錢의 高價를 示함에至하엿다 勿論雨天을 繼續하는때는 秋事의 遲延으로 産地의 出廻도 遲緩할것이므로 누구나 買方針을 捨하지 안는 모양이나 天候恢復되는때는 市勢의 反落도 업지안흘 모양이죽 高價의 追隨買는 警戒하는것이 得策이 아닐가한다 그런데 朝鮮은 秋日氣가 良好하엿든만큼 如干氣雨天으로는 急히 收量을 憂慮할것이업스나 日本內地는 關東天氣가 繼續不良하엿든만큼 第二回豫想의 減收量 憂慮하는 바이므로 刈入을 完了하기까지의 天候如何가 가장 注目되는 바이다

期米 天氣不良 反高

前場反撥

今朝는雨後曇天 東京 大阪 下關모다 雨天으로 阪地初付卅一圓二十錢인 二十丁高 先限은 二十八圓六十錢에 中는 八圓六十四錢인 十四丁高 二十丁高로 場을 始한後 一節五十九錢까지 下押하엿다가 阪地二十一錢의 連節同價으로 引하야 六十一錢으로 小戾하야 結局 阪止十八錢, 五十九錢에 止場하다 ▲後場은 例休

國債 好材無響 閑散

(東京電話同盟) 日銀의保證發行限度擴張과 國債의 保利子引下等을 傳하나 連日閑散裡에 推移하는데다가 一向刺戟이업고 休日을 압두고 依然 彷徨하야 甲號第三回五分, 二回四分, 佛貨公債等에 小口의 取引만 散見되고 市勢는 全然變化가업섯다

▲二回四分 一〇一、四〇▲二十三年物 九八、三五

正米 定期高로 反戾

京城不變 本日定期强保合이나 正米는 出廻小口의 消極商談으로 不變商이엇다 ㊀三等三〇、六〇 四等三〇、三〇 一等白米一二、四〇

仁川焦付 晩稻刈込의 農繁期라 奧地로부터의 出廻買物이 一巡이오 市中賣物은 薄으로 內地入注은 不合하야 갈아사는 買物이 업고 賣方不賣態度로 閑散이오 市勢도 前値同際으로 焦付이엇다

穀良	三〇、六〇	三〇、三〇
銀坊主	三〇、八〇	三〇、五〇
多摩錦	三一、一〇	三〇、九〇
一等白米	四一、四〇	㊀一二、三〇

群山反戾 出廻十七俵 休日을 압두고 今朝는 入注一巡이오 大口荒稼的買物이 잇섯스나 人氣良好하야 賣物은 稀薄 期米高側은 採算原料買로 十錢方戾이엇다 ㊀銀坊主三〇〇五 一九八五 一等白米 一三一〇

木浦反撥 天候不良으로 市中賣物薄인데다가 人氣好轉되고 期米急反騰으로 二十錢高로 反撥을 演하얏다 ㊀銀坊主三〇〇 一九八〇 一等白米 一二七〇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先限 [illegible]

朝取 益金證券 京城府南大門通

期米 大 仁川海岸町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

海外經濟 (十五日) / 銀行券 (十五日) / 手形交換・金利 / 對外爲替 / 金銀價 / 正米 / 正租 / 雜穀 / 綿絲布 / 滿洲商況 / 鋼油粕・麥粉 / 株式 (朝取短期・東京短期・大阪短期・東京現株・大阪長期) / 期米 (朝取期米・大阪期米・木浦期米・群山期米・東京期米・大阪期米) / 綿絲 / 棉花 / 人絹 / 生絲 / 砂糖 / 京城物價 (十六日)

[illegible]